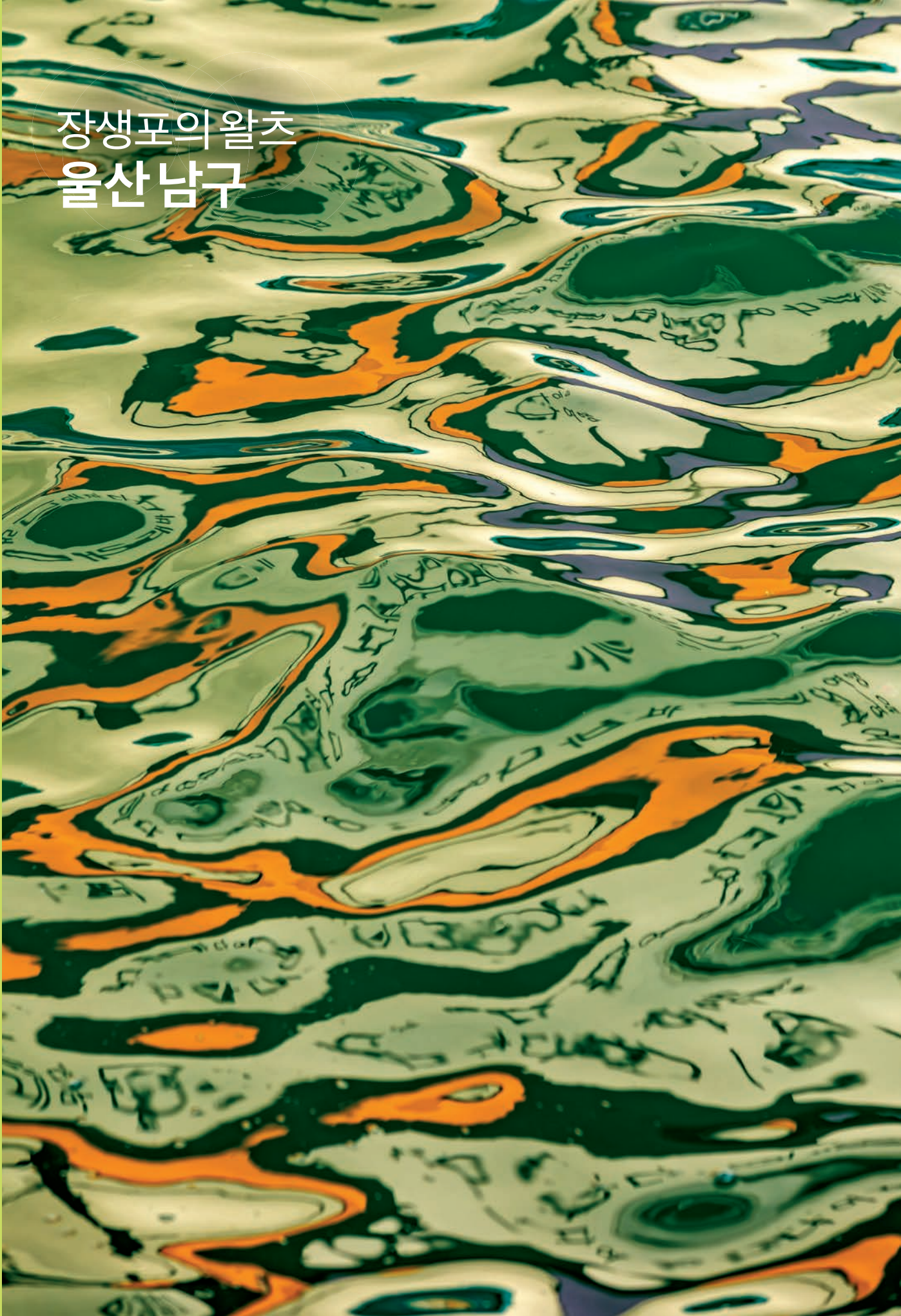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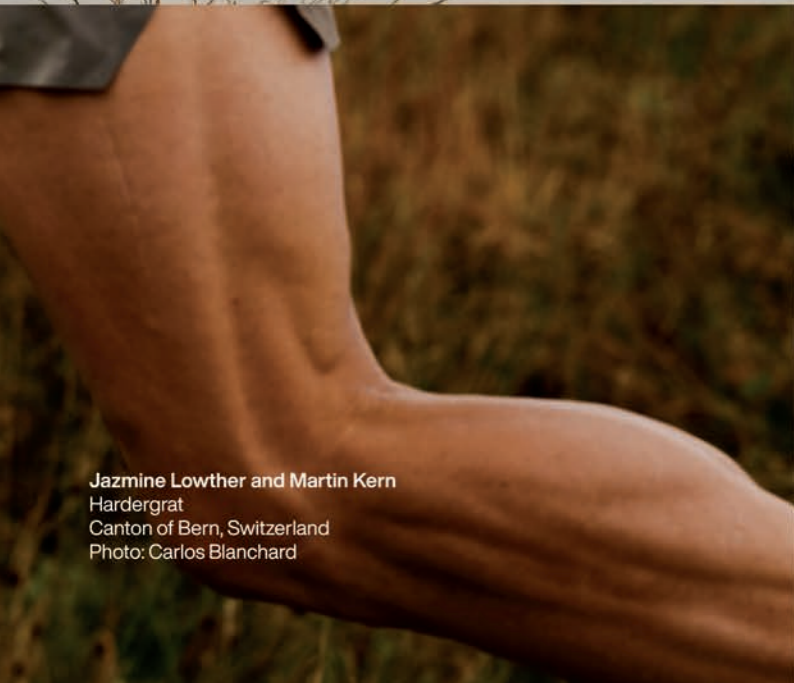


장생포의 왈츠
울산 남구





THE SYLAN 2

WIND AT YOUR BACK



ARC'TERYX

Jazmine Lowther and Martin Kern
Hardergrat
Canton of Bern, Switzerland
Photo: Carlos Blanchard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이달의 여행
038 **장생포의 왈츠**
울산 남구

고래의 전설이 오랫동안 잠들었던 장생포를 깨운다. 파도처럼 밀려와 포구에 쌓인 이야기가 온 마을을 먹여 살리고 있다.



표지 이야기
울산 남구 장생포

일렁이는 물결 위로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에 새겨진 글자가 춤을 춘다. 수심이 깊고 바람이 적어 선박이 드나들기 좋은 울산 남구 장생포는 예부터 포경업이 발달했다. 한때 포경선의 뱃고동 소리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번성했지만, 포경이 금지되면서 활기를 잃었다. 장생포를 잠에서 깨운 건 고래의 전설.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며 기지개를 켜다.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을 비롯해 고래문화마을, 장생옛길 등 고래의 전설을 콘텐츠로 한 장생포항에서는 2013년부터 고래바다여행선이 출항했다. 연안을 따라 바다를 감상하고, 고래 탐사도 할 수 있다.

AHILO

- 016 듣는 여행
고요함에 닿는 여정
칭아하게 울려 퍼지는 싱잉볼 소리를 따라 깊은 명상에 빠져든다.
- 018 촬영지 여행
벼랑 끝에 선 여자
드라마 <세이렌> 속 미술품 경매사가 죽은 약혼자의 위패 봉안식에 참석하러 전남 구례의 사성암으로 향한다.
- 020 여행자의 공간
연남동의 프런트 데스크, 코니스
따뜻한 조식과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컬 정보도 공유하는 신상 카페가 생겼다.
- 022 한국의 맛
유리로 조각보를 짓다
조승연 작가의 '조각보 접시'는 한국 전통 규방 공예인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었다.
- 024 한국의 맛
바다 안개 머금은 솔 향
로즈메리는 지중해 연안의 바다 안개 속에서 연푸른색 꽃을 피우는 허브다.
- 028 시절, 풍경
나를 잃는 모험
흔들고 흔들리며 경계 없이 스며드는 봄날의 풍경을 담았다.
- 034 전국 행사 달력
5월의 축제 소식
계절의 정취를 느끼며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영화와 공연을 즐긴다.
- 062 여행의 발견
별빛 따라 걷는 영천
발길 닿는 곳마다 별을 마주하는 경북 영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 076 함께 여행
오늘의 기분을 뜨다
땡스의 신미하대표가 건강한 취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뜨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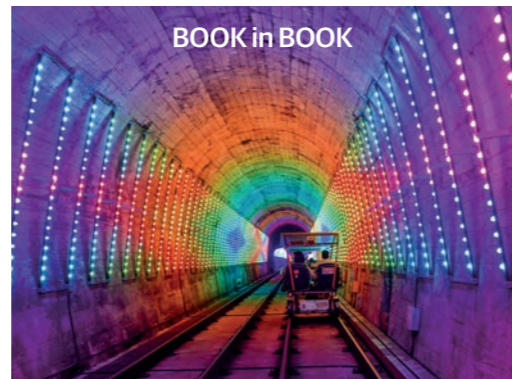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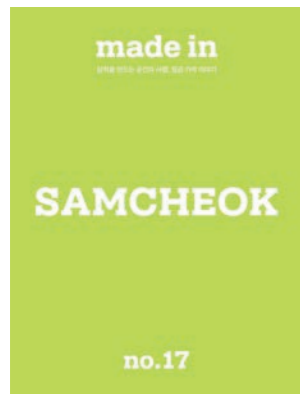
062



076



BOOK in BOOK



BOOK in BOOK

made in SAMCHEOK
삼척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강원도 삼척의 문화유산과 건강한 생태 여행지,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마주했다.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114 인터뷰

음식 수행자와 우주의 밥상

음식을 먹는 건 우주와 만나는 일이며, 그 자체가 수행이고 명상이다 말하는 음식 수행자 대안 스님을 만났다.



114

122 전시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허스트 씨

시각적 탐미와 잔혹한 역설이 뒤섞인, 데이미언 허스트의 개인전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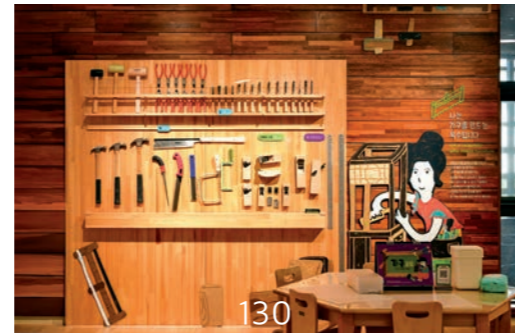


122

130 에디터의 노트

오늘은 나도 꼬마 공예가

창작이 곧 놀이가 되는 곳,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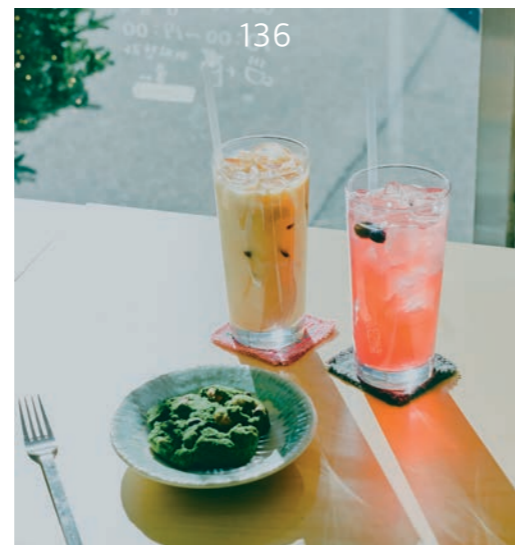


130

136 KTX타고도보여행

지루할 틈 없는 충주

충북 충주에서 아지트 삼을 매력적인 공간을 돌아다녔다.



136

142 책 속의 무대

진실에 무관심한 현대인의 미래

연극 <빅마더>는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권력 기관과 이에 맞서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146 트렌드 읽기

내밀한 회복의 경험, 리커버리노믹스

심, 회복, 재충전이 소비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5월의 소식

웃음과 감동, 공포와 서스펜스를 넘나드는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160 플레이리스트

추다헤차지스와 떠나는 음악 여행

사이키델릭 사마닉 펑크 밴드 추다헤차지스의 굿판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INFORMATION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LG아트센터 서울 2026년 기획공연 무대 위에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

LG아트센터 제작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이서진 고아성 양종욱 이화정 김수현 조영규 민윤재 변윤정



2025 올리비에상 수상작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Kidd Pivot

6.5 - 6.7

2026년 05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5호 통권 제263호
2026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홈페이지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오픈

경기도권 최초의 L7 호텔인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이 3월 26일 오픈했다. 광명시는 고속철도와 광역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도 운영해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은 KTX 광명역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인근에 롯데몰, AK플라자,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 시설이 있어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호텔은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로, 1층부터 8층까지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만의 모던하고 창의적인 감성으로 꾸민 로비와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고, 9층부터 27층까지는 총 22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투숙 인원과 숙박 목적에 맞는 다양한 타입의 객실로 구성된 것이 특히 돋보인다. 아이 동반 가족에게 적합한 벙커 객실, 더블 베드 2개를 배치한 스위트룸 등 패밀리 객실은 물론 1인 객실도 있다. 소규모 워크숍이나 단체 행사 시에도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은 7층의 인피니티 풀이다. 시그너처 공간인 만큼 수영장에서 휴식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겨 준다. 개폐식 지붕 설계로 경기 서남부권 호텔 중 유일하게 실내외 수영이 모두 가능해 사계절 내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차별화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야경을 보며 수영을 즐기는 저녁 시간은 성인 전용으로 운영해 커플 단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과 바, 쿠킹 스튜디오, 미디어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활기차고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다.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확인해 보세요.



제작 지원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안데스 콘도르의 날개를 달다

“그러니까 푹푹한 친구 좀 소개시켜 줘. 맨날 내빼지 말고 썬이 그냥 와 주시던가.” 부탁 반 험박 반으로 하소연했지만, 회사에 매이는 걸 싫어하는 그녀는 고개를 주억이며 번번이 죄송하단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석 기자 자리가 빌 때마다 애걸복걸했으니 저도 참 오기가 만만치 않았죠. 지난 3월 고아라 수석 기자가 편집실을 떠난 날에도 예외 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뒷걸음칠 것 같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전에 꼭 인도네시아 화산 투어는 다녀오고 싶어요.” 마음이 하늘하늘 부풀어 손으로 부여잡지 않으면 똥똥 똘똘 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누구냐고요? 지난해 1월부터 구본창 사진가, 동춘서커스단의 박세환 단장, 유이화 건축가, 류현경 배우 등을 인터뷰한 이미션입니다. 프리랜서로라도 발목을 붙잡아 놓으려 한 건데 드디어 편집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션 남’을 고집했을까, 그 이유를 밝히자면 무려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KTX매거진> 창간 2년 후인 2006년, 당시 수석 기자였던 저의 후배로 입사한 그녀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촉수를 장착한 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입에 착 붙는 기사를 잘도 썼습니다. 그렇게 편집실 에이스로 펄펄 날더니 어느 날, 진짜 날개가 돋았는지 프리랜서를 선언했죠. 이후 그녀를 다시 만난 건 2015년 해외여행 잡지 <AB-ROAD>에서였습니다. 녹진한 기획과 화끈한 글발로 굳이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수작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 부암동과 성북동 그리고 필동. 같은 직장 동료로 세 번이나, 그중 두 번은 같은 매체에서 만난 것이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편집장의 글’을 통해 언젠가 편집실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이미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유롭고 용맹해진 기분. 날개가 무려 3미터에 이른다는 안데스 콘도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연중 가장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사분사분 걸으며 여행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포경 산업의 중심지에서 문화 예술 도시로, 올해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는 울산 남구를 조명했습니다. 낡은 냉동 창고는 예술가들의 영감이 흐르는 장생포문화창고로, 뱃사람들이 머물던 옛 여인숙은 아트스테이로 거듭났고, 새롭게 선보인 공중그네 ‘웨일즈스윙’과 최고 시속 4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웨일즈카트’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보현산땀출렁다리 위로 흐르는 별빛을 카메라에 담았고, 신성일기념관을 찾아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은 대스타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경남 산청 금수암에서는 사찰 음식이 현대의 식생활과 연결되도록 다양한 채식 레시피를 개발해 온 대안 스텝을 만났습니다. 뒷산에 올라 어린썩을 캐고 두릅을 따 밥상을 차려 준 스님은 “음식을 먹는 건 우주를 만나는 일이며, 그 자체가 수행이고 명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면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뜨개를 제안하는 땡스를 찾아 하루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날을 맞아 지난 2월 ‘공예 놀이터’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로 새 단장한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소개했고, 시각적 탐미와 잔혹한 역설이 뒤섞여 감성과 이성을 뒤흔드는 데이미언 허스트의 개인전을 파헤쳤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필동 사무실로 향하는 길, 벚꽃이紛紛히 흩날립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 얼굴로 꽃비를 맞으며 실감합니다. 훌쩍하리만큼 단단한 편집실이 되었으니, 버리고 뒹은 사유의 칼날로 명징한 글을 써 내려가야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제5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장생포 우국, 열렘을 타다

개막식 6. 19. (금) 19:30

2026. 6. 19. (금) ~ 6. 28. (일) 09:00 ~ 20:00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주최·주관 **Ubc** 울산방송 후원 **울산광역시 남구**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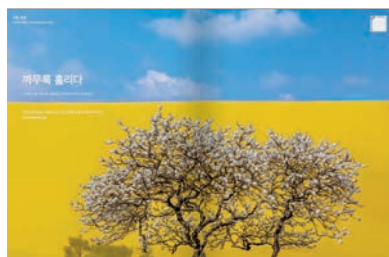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로 물레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박수아 서울시 송파구 정리로

자목련이 소매를 걷고 계절을 넘는다. 표현이 왜 이리 마음을 울릴까. 의인화는 교과서로만 배웠는데, 이렇게 잡지에서 보고 감동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꽃따라 소매를 걷어 볼까? KTX를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4월을 만끽할 용기 한 모금을 마셨다.

박소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3월 마지막 주말, 새 잡지를 가장 먼저 읽는다는 생각이 신이 나서 집어든 <KTX매거진> 4월호. 어스름하게 찍힌 흥매화 사진과 "봄의 리듬을 따라 해남"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두륜산, 고산운선도유적지, 달마산기암괴석 등 시맥을 오가며 서툰 곳들의 지명도 반갑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5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5월 11일까지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전국 20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회원이 한가지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 & 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2025년 쓸비치 남해 그랜드오픈에 이어 '소노캄 경주가 같은 해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으로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쓸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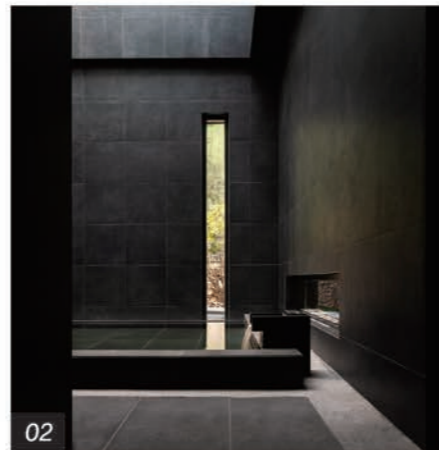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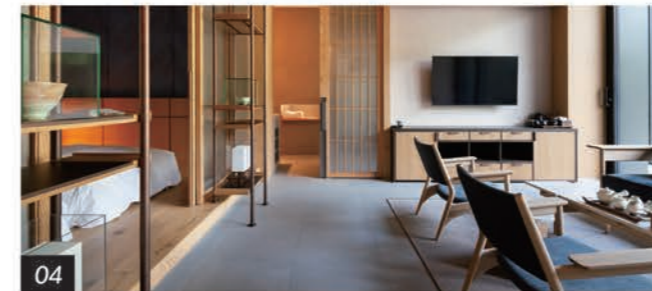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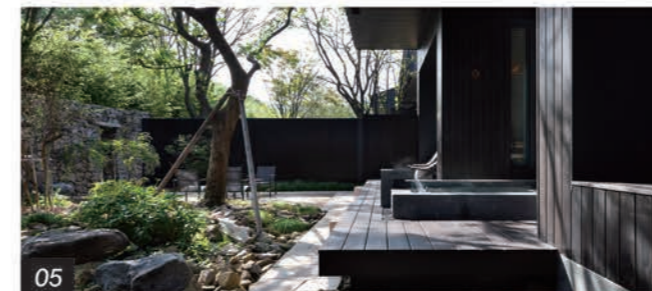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고요함에 닿는 여정

나무 막대로 싱잉볼을 두드리자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눈을 감고 천천히 공기의 떨림을 느껴 본다.



QR코드를 찍으면 경북 영천의 보현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체험관에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의 싱잉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여자

한 미술품 경매사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고, 과거 주변인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오랜 친구마저 그를 믿지 못하자 결국 허망한 심정으로 절벽 끝에 선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악한 거래들이 존재한다.” 보험 사기범을 쫓는 조사관 차우석은 한 미술품 경매사의 제보 전화를 받고 로얄옥션 건물에서 그를 만나기로 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차우석이 마주한 것은 제보자 김윤지가 옥상에서 추락하는 장면. 사건을 파헤치던 차우석은 사망자의 동료인 수석 경매사 한설아에게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한다. 열흘 전에 죽은 약혼자 윤승재를 포함해 그가 사귀던 세 남자 모두 보험금 수익자를 한설아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직전에 해약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김윤지 살해 혐의 용의자로 한설아를 체포하지만, 김윤지가 추락한 시각에 전시장 모니터에 한설아가 찍힌 영상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혐의로 풀려난다. 죽은 약혼자의 위패 봉안식이 있는 날, 한설아는 친구의 만류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전남 구례의 사성암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산 꼭대기에 자리한 이 사찰은 화엄종의 시조인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마애여래입상을 모신 사성암의 주 법당인 약사전에서 위패 봉안식이 열린다. 예상대로 윤승재의 가족에게 모진 말을 듣고 살인자 취급을 받은 한설아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절벽으로 올라간다. 홀로 서 있는 쓸쓸한 뒷모습과 수척한 얼굴이 벼랑 끝에 내몰린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잃기만 했지.” 허망한 표정으로 약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던지는 한설아는 포커페이스에 능한 살인자일까, 그저 우연한 불행이 계속 이어진 것뿐일까.



한 여자의 주변 사람들이 연이어 죽자 보험 사기범을 쫓는 조사관이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파헤친다. 로맨스와 스릴러가 뒤섞인 드라마 <세이렌>에는 박민영과 위하준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 tvN



축구 레전드 이종국이 선택하는

파나소닉 안마의자 가정의달 특별 할인

REAL PRO MAN1 300만원 상당 혜택

기간: 5/1 ~ 5/31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91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L1 100만원 혜택



MAL1 구매고객 하이원 리조트 숙박권+워터월드 이용권2매 증정 (경품 소진 시 종료)



가까운 매장 찾기

고객상담실 1588-8452 panasonic.co.kr



연남동의 프런트 데스크, 코니스

서울 연남동 골목에 글로벌 여행자를 위한 프런트 데스크가 생겼다. 따뜻한 조식과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컬 정보도 공유하는 카페 코니스다.

사운즈 한남, 디타워 등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해 온 핏플레이스가 숙박 시설이 많은 연남동에 프런트 데스크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 영업을 시작한 카페 코니스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조식을 제공하며, 말간 짐은 오후 5시까지 보관해 준다. 고메 버터를 발라 구운 탕종 식빵, 삶은 달걀, 두 종류(애플 시나몬, 딸기)의 잼, 포비의 스모커 원두로 내린 커피로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은 장시간 이동에 지친 여행자의 속을 든든히 채운다.

오후에는 가향차, 블렌딩 홍차, 허브차 등 프리미엄 차를 버터 향이 물씬한 빵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클로티드 크림과 트리플 베리 잼을 곁들인 수제 스콘도 준비하는데, 화이트 초콜릿을 더한 썩스콘은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입안에서 기분 좋게 맴돈다. 1980년대 주택을 방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민 이곳에는 이호 대표의 감각이 엿보이는 빈티지 숍 '세컨핸즈 세컨찬스'에서 옷을 고르거나, 핏플레이스 디자이너가 제작한 업서와 티셔츠를 구경하는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감도 높은 인테리어 조화와 생화를 파는 쉐스데이그린의 오프라인 숍이 궁금하다면 붉은색 카펫이 깔린 방을 찾아가면 된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코니스에서는 언어 교환 모임, 브랜드 팝업, 디너파티 같은 모임이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시작은 4월 중순에 열린 크리에이터 오대용의 인터뷰 집 <내가 만난 외국인들>의 북토크였다. 연남동 일대 여행을 계획했다면 코니스에 짐을 내려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환한 미소로 손님을 반기는 직원들이 첫 여행지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5길 16-3



Panasonic Beauty

에스테티션의
섬세함을
손에 준다



EMS와 괄사의 시너지 케어
VITALIFT
KASSA



EH-SP86



가까운 매장찾기



물 세척 가능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유리로 조각보를 짓다

조승연 작가의 '조각보 접시'는 한국 전통 규방 공예인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었다. 천을 염색하듯 오방색을 입힌 유리판을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잘라 붙인 모습이 조각보를 닮았다. 유리 조각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자유로운 리듬을 만들고,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감이 일상에 활기를 더한다.



옷에 대한 이로운 가치와 정성 아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산뜻한 계절감에 더한 깊이 있는 스타일링.

1 리넨 배색 심플 버킷 햇트(APCW900)

라이트한 그린 컬러가 멋스러운 리넨 소재 버킷 햇트. 물레 장식 포인트로 단아한 아일로만의 무드가 살아난다.

2 고운결 리넨 블라우스(APDB230)

리넨의 내추럴한 조직감과 드라이한 터치감이 특징인 블라우스. 박시 실루엣과 드롭 숄더로, 아웃핏에 담백한 구조감을 부여한다. 동일한 톤의 레이스 원단 배색 포켓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살린다.

3 아쥘리프 롱 스카프(APBZ910)

계절감이 돋보이는 밝은 옐로 그린 컬러의 나뭇잎 모티브 롱 스카프. 산뜻한 컬러감으로 내추럴한 코디에 포인트가 된다.

4 고운결 리넨 베스트(APDT200)

곡선형 절개와 아더 컬러 배색으로 은은한 포인트를 준 리넨 베스트. 미니멀한 슬리브리스 톱이 매력적이다. 부드러우면서 세련된 톤온톤 컬러 대비로, 단독 착용이나 다양한 하의와의 스타일링에서도 담백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5 고운결 리넨 팬츠(APDP230)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게 길들여지는 내추럴 무드의 와이드 실루엣 팬츠. 소재 특유의 슬립감과 자연스러운 표면감이 특징이다. 동일 계열 레이스 배색으로 소재 간의 미묘한 질감 대비가 은은하게 드러난다.

6 밴딩 벨트 단화(APBX910)

동글고 편안한 형태의 내추럴 컬러 단화. 스웨이드와 패브릭 소재 믹스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된다.





바다 안개 머금은 솔 향

라틴어 '로스마리누스(바다의 이슬)'에서 이름이 유래한 로즈메리는 지중해 연안의 바다안개 속에서 연푸른색 꽃을 피우는 허브다. 한국 전역의 노지에서
도 잘 자라며,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시원하고도 달콤한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차, 향수, 방향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2026 강릉단오제

풀리니, 단오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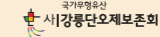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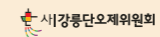
굿판에서 **한**을 풀고
창포물로 **액**을 풀고
난장에서 **이야기**를 풀고

마음을 풀고
서로가 함께 풀리는 순간, 단오



6.15^일 - 6.22^일

www.danojefestiva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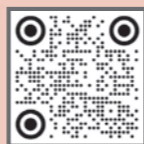
이달의 추천 여행지

- 1 포토존 인증촬영
- 2 개인 SNS 사진업로드
- 3 강릉관광홈페이지 '강릉방문의해-SNS 이벤트' 신청
- 4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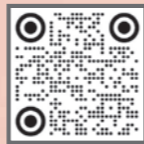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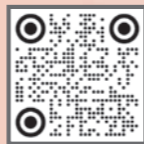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 이시형 명예원장

즐기세포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다

단순히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과 이시형 명예원장을 만나 건강 수명을 늘려 젊게 사는 비법을 들었다.

웰빙 트렌드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항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즐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에 특화된 청담셀의원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선 면역력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과 즐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명예원장과 항노화 즐기세포 치료 스페셜리스트 조찬호 대표원장에게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두 분 모두 안티에이징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 치유력'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항상성과 재생력,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의 근간입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항노화 의학도 결국 자연 치유력과 회복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즐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을 설명할 때 자연 치유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연 치유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시형 명예원장** 누구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병을 막고 극복하는 '방어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 체력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만, 방어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면역력, 자연 치유력과 연관된 방어 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 기반이 흔들린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음, 이른바 '건강 회색 시대'에 있는 거죠. 방어 체력을 살펴야 한다는 이 명예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과 재생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장수 비결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꾸준한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만성피로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게 중요하죠. **조찬호 대표원장**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노화가 누적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억치나 면역력의 개인차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를 병행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즐기세포 치료를 들 수 있어요.

즐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즐기세포 치료는 본래 몸이 가진 회복 시스템을 돕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담셀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 패턴을 다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부터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 관리 '활셀(活Cell)'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도 수차례 즐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채취한 즐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관리는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시형 명예원장**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식사와 수면, 마음가짐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 출발점이 아닐까요. **조찬호 대표원장** 즐기세포 기반 접근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의학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복 기반을 끌어올려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늘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시절, 풍경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안홍범



흔들고 흔들리며 경계를 넘는 존재의 혼돈.

2025년 4월 경기도가평

나를 잃는 모험

나를 잃기 좋은 당돌한 대면의 순간.

내가 보는 것이 나일까, 네가 보는 것이 나일까.

2025년 5월 경북 경산





깊은 물이라야 고요함을 얻는다. 고요한 물이라야 또렷함을 담는다.

2026년 4월 울산

FESTIVAL



2026문경차사발축제

문경 05.01~10

올해 28회를 맞는 문경차사발축제가 '문경차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예명장 특별전, 문경도자기 명품전, 문경도자기 한상차림전 등 다양한 테마의 도자기 전시를 선보이고, '사기장의 하루'에서는 도예 작가들이 전통 차사발 제작 시연을 한다. 이 외에도 EBS 인기 프로그램 <한글용사 이야기> 퍼레이드, 줄타기 공연 등 전 세대가 즐길 만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 개막식에는 문경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신현지·박서진·안성훈·윤윤서·영기가 출연한다.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문의 054-571-7677



연등회

서울 05.16~17

수만 개의 등불이 도심 곳곳을 환히 밝힌다. 연등회 첫째 날은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종로 거리를 지나 조계사까지 연등 행렬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등을 들고 행진하고, 행렬이 끝난 후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지는 대동한마당에서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환희의 꽃비를 맞으며 강강술래를 한다. 둘째 날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설치한 100여 개 부스에서 연등 만들기, 사찰 음식 체험, 전통 놀이 등 전통문화를 즐긴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체험 존도 운영한다.

장소 서울 종로 일대 문의 02-2011-1744



FESTIVAL



2026영주소백산철쭉제

영주 05.23~24

분홍빛 철쭉이 만개하는 봄의 한가운데, 소백산의 장엄한 산세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매년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영주 소백산 철쭉제는 산악형 자연 축제로, 트레킹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생태 해설, 자연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소백산 일원에서 죽령옛길 걷기, 소백산 등반 대회, 치유 워킹, 플로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을 방문하면 철쭉 정원 포토존에서 봄기운 가득한 사진을 남기고 철쭉음악회도 관람한다.

장소 경북 영주 소백산 일원 및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문의 054-639-6612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04.29~05.08

영화인들이 기다리던 축제가 돌아왔다. 켄트 존스 감독이 연출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윌럼 더포가 전직 시인으로, 그레타 리가 스타를 꿈꾸는 배우로 출연한다. 폐막작에는 <어린 김장하>의 김현지 감독이 시민 수만 명이 모여 밤샘 집회를 벌인 '남태령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다큐멘터리 <남태령>이 선정됐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한 벨라 타르 감독의 <사탄탕>도 특별 상영한다.

장소 전북 전주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원 문의 063-288-5433



© Late Fame LLC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기차 타고 가는 전국 축제 총정리

운전의 피로와 주차 걱정 없이
기차 연계 교통으로 편하게 즐기는 5월의 전국 축제 총정리.

1

연등회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가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된다. 행사장은 서울 종각을 포함한 종로 일대로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각역에서 내린다.

2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예술 영화의 혁신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역에서 6번 버스를 타고 공구거리·상진신협·영화의거리 정류장에 하차, 5분 정도 걸으면 전주영화의거리에 닿는다.

3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일제히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곡성역에서 행사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7

2026 해운대 모래축제

해운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해운대 모래축제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역에서 1001·1003번 급행 버스를 타고 동백섬입구 정류장에 하차, 2분 정도 걸으면 해운대해수욕장에 닿는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부산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해운대역에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4

2026 삼척 장미축제

천만 송이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는 삼척 장미축제가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장미공원에서 열린다. 삼척역에서 240·242번 버스를 타고 삼척교사거리 정류장에 하차, 5분 정도 걸으면 행사장에 도착한다.

5

2026 문경차사발축제

차사발 빛기와 다례 체험 등 도자기 문화를 경험하는 문경차사발축제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문경역에서 시내버스 211번을 타고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류장에 하차하면 행사장을 만난다.

6

2026 영주 소백산 철쭉제

산악형 자연 축제인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소백산 일원과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펼쳐진다. 영주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22번 버스를 타고 봉천사거리 정류장에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 도착한다.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받자!

응모 방법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은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5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6월 5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여행의 심포가 되는 곳, 영천



장생포의 왈츠 울산 남구

고래가 생을 다하고 심해로 천천히 가라앉으면 바닷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꽃을 피운다. 고래낙하, 고래 한 마리가 온 바다를 먹여 살린다. 포경이 금지되고 오랫동안 잠들었던 장생포를 깨운 것도 고래다. 파도처럼 밀려와 포구에 쌓인 고래의 전설이 온 마을을 먹여 살리고 있다.

고래의 전설이 낙하한 자리

옆구리에 짐채만한 고래를 묶고 뱃머리에 오색 풍어기를 단
포경선이 의기양양하게 항구로 들어오면
팽과리를 치며 축제를 벌였다. 지금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과
장생옛길에는 옛 영화가 꽃처럼 피어 있다.

울산역을 벗어나자 거대한 고래 조형물이 반긴다. 잔잔한 수면 아래 몸을 반쯤 담그고 금방이라도 튀어 오를 것 같은 작품은 '회귀 그리고 비상'. 2012년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조형물이다. 산업도시 울산에는 고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장 오래된 건 태화강 상류 대곡천 절벽에 새겨진 암각화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고래 그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장면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선조들이 선사시대부터 배를 타고 태화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고래 이야기는 울산 남구 장생포로 이어진다.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

태화강과 동해가 만나는 장생포는 바다가 깊고 바람이 적어 선박이 드나들기 좋은 데다 먹이가 풍부해 오래전부터 포경업이 발달했다. 고래잡이로 풍요로웠던 1960~1970년대에는 뱃고동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고래문화마을에 그 시절의 마을 풍경을 재현한 장생포옛마을이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1만 원짜리 지폐를 입에 문 강아지 조형물이 꼬리를 치며 반긴다. 별다른 설명 없이도 풍요로웠던 장생포의 과거 속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강아지 조형물 뒤편으로 사진관과 문방구, 서점, 다방, 중국집 등이 들어서 있고, 골목을 따라가면 도장 가게, 교복점, 체육사, 고고장 등이 보인다. 각 공간마다 즐길 거리가 많은데, 옛날 교복을 대여해 입고 마을을 거닐면 레트로 영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골목 안쪽에는 선장의 집과 포수의 집이 있다.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장생포 마지막 포수, 추소식 어른신이다. 열아홉 살에 말단 선원으로 포경선에 올라 포경 금지 직전까지 포수로 포경선을 이끌고, 이후 원양어선 선장이 되어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는 그는 은퇴 후 고래문화마을의 문화해설사가 됐다. 덕분에 주말마다 포수의 집에서는 장생포의 과거와 포경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생포옛마을에는 15미터짜리 밍크고래를 해체하던 해체장과 고래기름을 추출하던 착유장이 있어 간접적으로 포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고래 고기를 삶던 고래막집에서는 분식을 팔고, 우체국에서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보낼 수 있으며, 고래빵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고래빵을 판매하니 꼼꼼하게 둘러보며 추억을 쌓기 좋다.





1



3



4

장생포옛마을 위쪽에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웨일즈 판타지움이 있다. 이곳에서 다섯 가지 미디어 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를 모티브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염원의 길'과 고래의 시선으로 울산을 여행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고래의 도시'가 특히 인상적이다. 반구대 암각화부터 울산 명소까지, 고래와 함께 가상의 울산 여행을 마치고 출구에 있는 디지털 아쿠아리움에서 나만의 반려 고래를 만든 다음 공중그네 '웨일즈 스윙'을 타러 2층으로 올라갔다. 눈앞에 울산만과 울산대교가 펼쳐진다. 테라스 끝에 매달린 그네가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방금 전에 본 '고래의 도시' 속 고래가 된 기분이다. 그네에서 내린 뒤에 또속속에서 고래가 춤추는 것처럼 오랫동안 울렁임이 멈추지 않는다. 바람의 온도가 높으면 고래문화마을 풍경이 더욱 다채로워진다. 5월에 최고 시속 40킬로미터의 롤러코스터형 체험 시설 '웨일즈 카트'가 운행을 시작하고, 수국 페스티벌이 열리는 6월에는 오색 수국이 만개해 일대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일 것이다.

고래 고기를 이고 읍내로 가던 장생옛길

추소식 어르신은 울산세관 통선장 맞은편 골목이 진짜 장생포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지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2차선 도로는 과거에 바다였고, 장생옛길은 장생포와 울산 읍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한다. 장생옛길에는 1970~1980년대 배경으로 한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가 있는데, 윤수일 생가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벽화 속 포수가 자신이나 잘 찾아보라는 말을 덧붙인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 장생옛길을 걸었다. 장생옛길 표지판을 지나자 오른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건물에 시선이 간다. 1900년대 초 주민들이 세운 신위당으로, 지금도 당산제와 풍어제를 지내는 곳이다. 과거에는 고래를 잡을 때마다 신위당 뒤쪽 당산나무에 고래 꼬리를 매달아 풍어를 기원했다고 한다. 두 명이 나란히 걸으면 팔 정도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오래되고 낡은 집의 벽과 담장을 도회지 삼아 장생포의 근대사가 펼쳐진다. 장생포 고래잡이 문화를 기록한 벽화가 이어지고, 장난스러운 표정의 아이들을 그린 벽화 너머로 군데군데 고래 고기를 팔러 읍내로 나가는 남자의 동상과 샘물을 길어 나르는 소녀의 동상이 보인다. 벽화 속 소년들과 달리 웃음기 없는 동상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장생옛길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이다. 장생포가 고향인 야구 선수 윤학길과 가수 윤수일이 이 길에 이야기를 더한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윤학길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다. 선수 시절 세운 100경기 완투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윤수일은 장생포에서 태어나 열아홉 살까지 울산에서 살았다. 포장도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윤수일 고향집 터가 나오고, 근처에 윤수일의 얼굴과 앨범 그림으로 꾸민 아파트가 있다.

장생옛길은 장생포둘레길을 통해 고래문화마을과 연결된다. 봄비가 지나가고 꽃비가 내리는 장생포둘레길을 걷다 꽃나무 아래서 축을 깨는 주민을 만났다. 이즈음에는 비가 한 번 내릴 때마다 잎이 쭈욱 올라온다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풍경이 군데군데 들쭉날쭉 피어 있어 다행이다.



5



2

1 웨일즈 판타지움 2층 테라스에 신선히익스트림 체험 시설 '웨일즈 스윙'. 2 장생포옛마을의 장생포 고고장을 지키는 그 시대의 패셔니스타. 3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을 잇는 장생포모노레일. 4 오색수국정원을 비롯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수국 페스티벌이 열린다. 만개한 오색 수국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토존, 음악회, 먹거리 센터, 체험존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다. 5 장생옛길은 장생포와 울산 읍내를 연결하던 최초의 길로, 1970~1980년대 장생포 풍경을 재현했다.

Where the Legend of Whales Came Ashore

In the industrial city of Ulsan, stories of whales run deep. The oldest traces appear in petroglyphs carved into the cliffs of Daegokcheon along the upper Taehwagang River. Among the many whale images are scenes believed to depict the world's earliest whale hunts, suggesting that people in prehistoric times sailed down the river to the sea in pursuit of whales. At Whale Culture Village, the past comes back to life in Jangsaengpo Old Village, a recreation of the town as it once was. Photo studios, stationery shops, bookstores, cafés, and Chinese restaurants line the streets, while deeper inside are stamp shops, uniform stores, sporting goods shops, and dance halls. Visitors can also see a captain's house, a harpooner's home, a facility where a 15-meter minke whale is processed, and an oil extraction site, offering a glimpse into the whaling culture of the time. Above the village stands Whales Fantarium, a media art space featuring five immersive exhibitions. On the second-floor terrace, visitors can try the aerial swing known as Whales Swing. From May, the CoasterKart, reaching speeds of up to 40 kilometers per hour, begins operation, and in June, the Hydrangea Festival transforms the area with blooms in full color.

Across from the Ulsan Customs Ferry Boat Terminal, a narrow alley has been developed into Jangsaeng Old Road. Before the coastal road was built, this was the only route connecting Jangsaengpo to central Ulsan. Today, it has been reimagined with installations and murals inspired by the 1970s and 1980s. The walls and fences of old houses become canvases, telling the modern history of Jangsaengpo. Stories of local figures such as baseball player Yoon Hak-kil and singer Yoon Soo-il add another layer to the walk.

Address 271-1,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Whale Culture Village), Jangsaengpogorae-ro 183beon-gil, Nam-gu, Ulsan (Jangsaeng Old Road)





소생의 파도, 고래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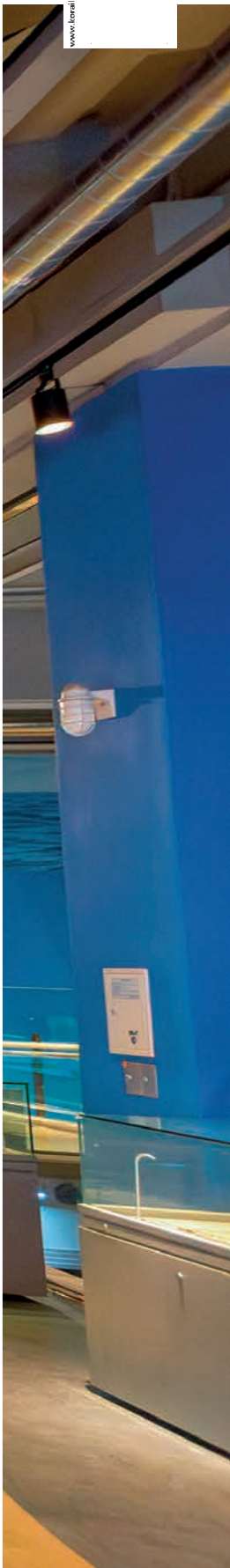
고래경(鯨), 바다해(海). 동해의 다른 이름이 경해였다.
고래가 들끓던 바다라는 뜻이다. 그 많던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소
이경리 박사와 함께 고래의 흔적을 쫓았다.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태어나 네 발로 걸던 고래는 육지에 살다 바다로 갔다. 바다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되고 뒷다리는 퇴화했으며, 콧구멍은 숨쉬기 쉽게 머리 꼭대기로 이동했다. 작은 포유류였던 고래는 바다로 나아가 공룡보다 큰,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로 진화하며 바다의 주인이 됐다. 바다에 살면서 여전히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고, 체온을 유지하며 폐로 숨을 쉬는 고래의 이야기를 찾아 장생포고래박물관으로 향했다.

실물 고래 골격과 포경 유물 전시

장생포고래박물관은 포경 금지 이후 사라져 가는 포경 유물을 보존하고, 고래와 해양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005년에 개관한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1890년대 이후 근대 포경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의 과거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1층에는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다. 두 갈래로 물을 뿜어내는 긴수염고래,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귀신고래, 머리 모양이 뭉툭한 향유고래 등 고래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반구대 암각화 그림을 보고 있자니 신석기시대 피카소들을 향한 존경심이 솟는다. 동선은 실제 크기의 다양한 고래 골격이 전시된 3층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에 90여 종의 고래가 살아요. 크게 이빨고래와 수염고래로 나뉘는데, 먹이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이빨고래는 이빨로 먹이를 물어 죽이거나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켜요. 이빨 대신 수염관을 가진 수염고래는 입을 크게 벌려 바닷물을 한 입에 삼킨 다음 입안의 털을 부풀려 새우나 크릴 같은 먹이를 걸러 내죠.” 이경리 박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브라이드고래와 범고래의 골격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 갔다. 범고래는 이빨고래이고 브라이드고래는 수염고래인데, 귀여운 외모와 달리 범고래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사나운 고래라고 한다. 전시관 한쪽에는 귀신고래 두골과 보리고래 턱뼈, 브라이드고래 수염 등을, 다른 쪽에는 포경에 쓰던 작살, 고래 길이를 재던 막대, 고래기름을 뜨던 바가지, 고래기름을 정제하던 솥 등 포경 유물을 전시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브라이드고래의 골격 아래에는 실제 운항했던 포경선 일부가 놓여 있다.



“길이가 무려 3미터에 이르는 이것은 참고래 턱뼈예요. 참고래는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인데, 예전에 장생포초등학교는 참고래 턱뼈 두 개를 괴어 교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 고래가 흔했다는 얘기고요.”

그 많던 고래가 어디로 갔느냐고 묻자 이경리 박사가 한국 포경의 역사를 들려준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고래를 잡았다. 때마다 먹이를 챙겨야 하는 가축과 달리 고래는 바다에서 스스로 자랐고, 잡은 고래는 버릴 게 없었다. 기름은 램프 연료로, 수염은 귀족의 장식품으로 쓰였다. 상업 포경이 전 세계를 휩쓸던 19세기, 한국에 도착한 러시아인은 동해를 '고래 바다'라 불렀다. 멀고 거친 태평양까지 가지 않아도 근해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다며 반겼다. 그들이 주로 잡아들인 고래는 전 세계에 650마리 남짓 남았다는 북방긴수염고래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경업을 독점했고, 한반도 해역에서 참고래를 모조리 잡아들였다. 한국 포경의 역사는 광복 이후 시작됐다. 고래잡이가 전성기를 이루던 1970년대 말 장생포는 50여 척의 포경선을 두고 1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마을로 번성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구분별한 포경으로 포획량이 급격히 줄었고, 일부 종이 멸종하면서 포경 산업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리고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하면서 장생포 바다의 시간이 멈췄다. 이경리 박사는 “당시 한국은 명태 조업과 고래 포경 중 전자를 택했다”고 했다. 이후 장생포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포경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래 찾아 바다 탐사

고래바다여행선을 타고 울기등대·화암추 주변 해상을 항해하며 야생 고래를 찾는 고래 탐사 코스 체험에 나섰다. 계절이 교차하는 시기이니 운이 좋으면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고래 떼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지구온난화는 고래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고래가 살던 바다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도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먹이가 수온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동하면 단골 식당을 따라 고래도 움직이는 겁니다.”

기대가 컸지만 끝내 고래는 만나지 못했다. 이경리 박사의 얘기대로 고래들이 식당을 옮긴 모양이다. 아쉬움을 안고 고래생태체험관으로 향했다. 한국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으로, 1층에는 어류 수족관과 해저터널이, 2층에는 돌고래가 노니는 돌고래 수족관과 4D 영상관이 있다. 돌고래 수족관에는 큰돌고래 네 마리가 산다. 이들은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한지붕 돌고래 가족>의 모델이기도 하다.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태어난 돌고래 '고장수'가 해양동물복지사와 함께 성장한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전시다.

해가 지자 장생포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불꽃 쇼에 앞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 장생포옛 마을의 경찰서를 지키던 경찰서장이 사회자로 나선 것이다. 마술과 버블 쇼가 주를 이루며, 종종 울산 지역 예술인들도 공연을 선보인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치자 전시된 포경선 위로 불꽃이 터진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서 잠수하던 고래가 숨을 뿜어내듯 불꽃이 찬란하게 허공으로 흩어진다.


1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어류 수족관.
2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선인 고래바다여행선. 고래 탐사 코스와 연안 투어 코스, 야간 연안 투어 코스를 운영한다. 3 머리 위로 돌고래가 자유롭게 노니는 고래생태체험관 해저터널. 정기적으로 열리는 고래 생태 설명회가 바다 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4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서는 토요일 밤마다 '장생포 토요일꽃'을 진행한다.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에 탑승하면 배 위에서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3



4

A bronze sculpture of a young girl with a ponytail looking at a dolphin in a field of yellow flowers. The scene is set in a lush garden with green foliage and red flowers in the background.

Waves of Renewal, Songs of Whales

The East Sea was once known as Gyeonghae, meaning a sea teeming with whales. What became of those countless whales? In Ulsan, traces of their story can still be found at the Cetacean Research Institu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led by Dr. Lee Kyunglee, and at the Jangsaengpo Whale Museum.

Opened in 2005, the Jangsaengpo Whale Museum is dedicated to preserving artifacts from the whaling era and raising awareness of whales and marine ecosystems. It offers a glimpse into Jangsaengpo's past as a hub of modern whaling since the 1890s and into the lives of the people who once depended on it. The first floor houses a special exhibition on the Bangudae Petroglyphs along with rotating exhibitions, while the third floor displays life-sized whale skeletons. Visitors can even touch whale bones and learn about their historical uses through visual explanations. Beneath the massive skeleton of a Bryde's whale, which spans from the third floor down to the second, stands a section of an actual whaling vessel.

At the Whale Ecology Experience Hall, Korea's first dolphin aquarium, the first floor features fish tanks and an underwater tunnel, while the second floor includes a dolphin habitat and a 4D theater. The Ulsan Nam-gu district also operates the Whale Sea Tour, allowing visitors to head out by boat in search of whales in the wild. Routes include an offshore whale-watching course around Ulgi Lighthouse and Hwaamchu, as well as a coastal tour nearby. Every Saturday night, fireworks light up the square in front of the Jangsaengpo Whale Museum. Those joining the evening coastal tour can watch the display from the water.

Address 244,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Whale Museum), 248,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Whale Ecology Experience Hall)

예술이 된 고래의 전설

장생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포경 금지로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동사무소, 뱃사람들의 쉼터였던 여인숙,
해체한 고래 고기를 보관하던 냉동 창고가
흥미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

몇 해 전 울산을 여행한 친구는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 장생포 아트스테이 옥상에서 영화를 본 일을 꼽았다. 노을이 드리운 어느 여름날, 낯선 사람 여럿이 같은 방향으로 앉아 영화를 관람했고, 레지던시 작가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진행한 '옥상극장' 프로그램이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장생포 아트스테이의 활동을 지켜봤다. 프로그램은 매번 달랐고, 모두 흥미로웠다. 기회가 된다면 지난 연말에 열린 <장생포 비밀수사단: 사라진 호작도의 비밀>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 공연·전시·체험이 결합된 콘텐츠로, 관객이 비밀 수사단이 되어 공연을 관람하고 단서를 찾아 범인을 쫓는 참여형 미션 추리극이다. 장생포에 불거리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렸다. 공간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포경 금지 후 쓰임을 잃은 건물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 여럿이었다. 고래가 낙하한 자리에 꽃처럼 피어난 고래의 전설을 찾아다녔다.

영감의 샘이 된 폐건물

장생포 아트스테이는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절, 뱃사람들이 묵던 여인숙을 재단장한 것이다. 1972년에 지은 여인숙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2018년 문학 레지던시로 개관했다. 편안하게 머물기 좋은 북카페를 마련했고, 탁 트인 앞마당에서는 북 콘서트나 문화 강좌 등이 열린다. 전시실에는 예비 창작자와 마을 주민들이 예술가와 협업해 만든 아트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옛 여인숙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2층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다. 여인숙 뒤에는 목공 체험 공간으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여인숙 대문은 50여년 전 모습 그대로다. 우연히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를 만났다. '장생포 아트스테이에 글 귀신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을씨년스러운 와중에 1층에서 인기척이 들려 내려왔단다. 작가가 글 귀신을 만나면 (귀)신들린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는 저녁에 장생포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모임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들려도 좋다고 했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창작자들이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에게는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싶었다.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나와 큰길 쪽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4

걸으면 창작스튜디오131이 나온다. 장생포 동사무소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레지던시로, 전시 공간인 '작은 미술관'이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평소에는 대관하거나 기획전을 열고, 연말에는 입주 작가들이 릴레이 전시를 한다. 안타깝게도 전시 교체 시기에 방문해 텅 빈 화이트 큐브만 보고 돌아섰다. 장생포 아트스테이와 창작스튜디오131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장생포 문화예술창작촌 인스타그램(@ng_artvill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를 담는 보물창고, 장생포문화창고

벽면에 힘차게 헤엄치는 푸른 고래가 그려진 장생포문화창고는 1973년에 지은 냉동 창고였다. 2000년대부터 폐건물로 방치된 것을 수리해 2021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관했다. 1층에는 울산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청춘마당과 푸드코트가 있고, 2층에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이, 3~4층에는 갤러리가, 6층에는 소극장과 북카페 장생포 지관서가가 들어섰다. 현재는 6월 28일까지 열리는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5주년 특별전 <퀸즈 컬렉션: 브리티시 로열>을 관람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왕실 유산을 선보이는 전시로, 에드워드 7세의 왕홀(scepter)을 비롯해 영국 왕실 헌정 100캐럿다이아몬드 티아라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헌정 75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세기의 결혼식 웨딩 베일과 1992년 방한 당시 착용한 버건디 로즈 드레스 등 영국 왕실의 문화 컬렉션 유산 8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빅토리아 여왕부터 에드워드 7세, 조지 6세, 엘리자베스 2세, 윈저공 부부, 다이애나 왕세자비까지 영국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200년 왕실 역사가 한눈에 읽힌다.

6층의 장생포 지관서가는 인문학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가 기획한 북카페형 도서관이다. 지관서가(止觀書架)란 '멈추어 바라보는 책장'이라는 뜻인데,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잠시 인문학적 사유를 즐길 것을 권한다. 창밖으로 울산 산단과 어우러진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생포 지관서가의 테마는 '일'이다. 산업화를 이끈 울산의 정체성을 살려 노동 관련 책을 엄선했다. '울산 도서관'이 스티커가 붙은 책을 한 권 들고 상큼한 음료와 달콤한 케이크를 주문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의 거대한 저유탱크들이 보인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는 곳이다.

해 질 무렵 장생포문화창고 옥상에 올랐다. 바닷길을 따라 석유화학 공단과 정유 시설이 끝없이 이어진다. 낮에는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시설이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빛으로 반짝이자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 여기에 '장생포 라이트'가 더해지면 울산만의 특별한 야경이 완성된다. 장생포 라이트는 SK 저유탱크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다. 오후 8시가 되자 가로 150미터, 세로 19미터의 저유탱크 4기의 외벽이 스크린으로 변하고, 그 위로 '고래의 도시'가 상영된다. 울산공업센터의 기억을 간직한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한국 에너지 산업의 출발점인 SK 저유탱크에 펼쳐진 고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스크린에서 고래가 춤을 춘다. 쿵작작 쿵작작, 아침부터 밤까지 울산 명소를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춤을 춘다. 쿵작작 쿵작작, 심장 소리도 왈츠에 맞춰 춤을 춘다.



5

제작 지원 울산 에너지재단



3

1 오래된 여인숙을 재단장한 장생포 아트스테이. 문학 레지던시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이벤트를 진행한다. 2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열린 참여형 미션 추리극 <장생포 비밀수사단: 사라진 호작도의 비밀>의 한 장면. 3 바다와 울산 공단이 어우러진 북카페형 도서관 장생포 지관서가. 4, 5 장생포문화창고 개관 5주년 특별전 <퀸즈 컬렉션: 브리티시 로열>이 6월 28일까지 열린다. 영국 왕실의 역사적 순간과 상징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로, 80여 점의 왕실 진품 소장품과 야카이브를 선보인다. 관람은 무료, 예약은 필수.

When the Legend Becomes Art

Jangsaengpo Art Stay was created by renovating a former inn that once housed sailors during the height of the whaling industry. Built in 1972 and preserved in its original form, it reopened in 2018 as a literary residency. Today, it includes a cozy book café and an open courtyard where book concerts and cultural programs are held. A short walk away stands Creative Studio 131, a visual arts residency converted from a former community office. Its exhibition space, known as the “Small Museum,” is open to the public, hosting both planned exhibitions and year-end showcases by resident artists.

The Jangsaengpo Culture Depot, marked by a mural of two blue whales swimming across its exterior wall, was originally a cold storage warehouse built in 1973. Left abandoned for years, it was restored and reopened in 2021 as a cultural complex. The first floor features an open plaza and food court overlooking the sea, while the second floor houses a memorial hall dedicated to the inauguration of the Ulsan Industrial Center. Galleries occupy the third and fourth floors, and the sixth floor includes a small theater and the book café Jigwan Seoga, curated by the Plato Academy. Until June 28, the Culture Depot is hosting its fifth anniversary exhibition, Queen’s Collection: British Royal, presenting more than 80 items related to the heritage of the British royal family. The theme of Jigwan Seoga is “work,” reflecting Ulsan’s identity as an industrial city, with a carefully selected collection of books on labor and industry. Outside its windows, the East Sea meets the skyline of Ulsan’s industrial complex. On Friday and Saturday nights, the massive oil storage tanks nearby become the stage for Jangsaengpo Light, a large-scale media façade show that completes the city’s distinctive nighttime landscape.

Address 5-15, Jangsaengpogorae-ro 139beon-gil, Nam-gu, Ulsan (Jangsaengpo Art Stay), 131,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Creative Studio 131), 110,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Culture Depot)



보여 줄게, 완전히 달라지는 장생포

포경 역사와 고래의 추억을 간직한 장생포가 2026년 상반기, 익스트림 체험 시설과 야간 미디어, 체류형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형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고래문화마을에 장생포고래박물관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외에 새로운 트랙이 설치됐다. 5월부터 운영 예정인 '웨일즈 카트'다. 웨일즈 카트는 독일에서 제작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용 레일 활용 순환 동력식 체험 시설이다. 총길이 1.1킬로미터의 전용 트랙을 따라 장생이 캐릭터 등 다양한 디자인의 카트를 타고 최고 시속 40킬로미터로 수국정원 일대를 주행한다. 고래문화마을의 지형과 경사도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스틸을 구현했다. 하늘에서 장생포의 사계를 감상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고래등길'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상 20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길이 150미터의 공중 보행교로, 웨일즈 판타지움의 공중그네 '웨일즈 스윙'과 웨일즈 카트 승강장이 있는 고래광장을 잇는다. 입구에는 장생포의 새로운 상징인 수국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래등길 위에 서면 장생포 앞바다와 고래문화마을 전경이 한눈에 담길 것이다. 고래문화마을 서쪽 진입로에 있는 옛 해군 숙소는 12개 객실을 갖춘 숙박 시설 '고래잠'으로 재탄생한다. 수목이 울창한 공원 한가운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감성 숙소로, 장생포를 '잠시 들렀다 가는 곳'에서 '머무르며 추억을 쌓는 곳'으로 바뀌 놓을 것이다. 장생포고래박물관 옆에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해양미디어 파사드를 포함한 복합 공간 '더 웨이브(The Wave)' 공사가 한창이다. 일본 삼나무를 활용한 2층 목조건물로, 장생포 모노레일 탑승객은 높이 6미터, 길이 31미터



의 대형 미디어 터널을 지나며 다채로운 시각적 콘텐츠를 감상하게 된다. 1층에는 고래바다여행선 매표소가 들어서고, 2층 전망대 상부에는 유명한 고래를 상징하는 목조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옥상에서는 마치 배 위에 올라 장생포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환상의 섬' 죽도도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파출소 뒤편에 위치한 죽도는 1995년에 매립되면서 섬에서 육지로 바뀌었다. 섬에 남아 있는 3층 건물은 1981년에 지은 옛 해상교통관제센터로, 2013년까지 사용되다가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방치됐던 이곳이 전시 공간과 카페, 전망대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 '환상의 섬 죽도 갤러리'로 재탄생한다. 인근에 고층 건물이 없어 울산 앞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일 것이다.

- 1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최고 시속 4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형 체험 시설 '웨일즈 카트'.
- 2 옛 해군 관사를 활용한 감성 숙소 '고래잠'.
- 3 웨일즈 판타지움과 고래광장을 잇는 조망 명소 '고래등길'.
- 4 옛 해상교통관제센터 건물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환상의 섬 죽도 갤러리'.
- 5 목구조 건축물과 국내 최초 이동형 해양미디어 파사드를 포함한 복합 공간 '더 웨이브'.



걸어서 장생포 속으로, 장생포 스탬프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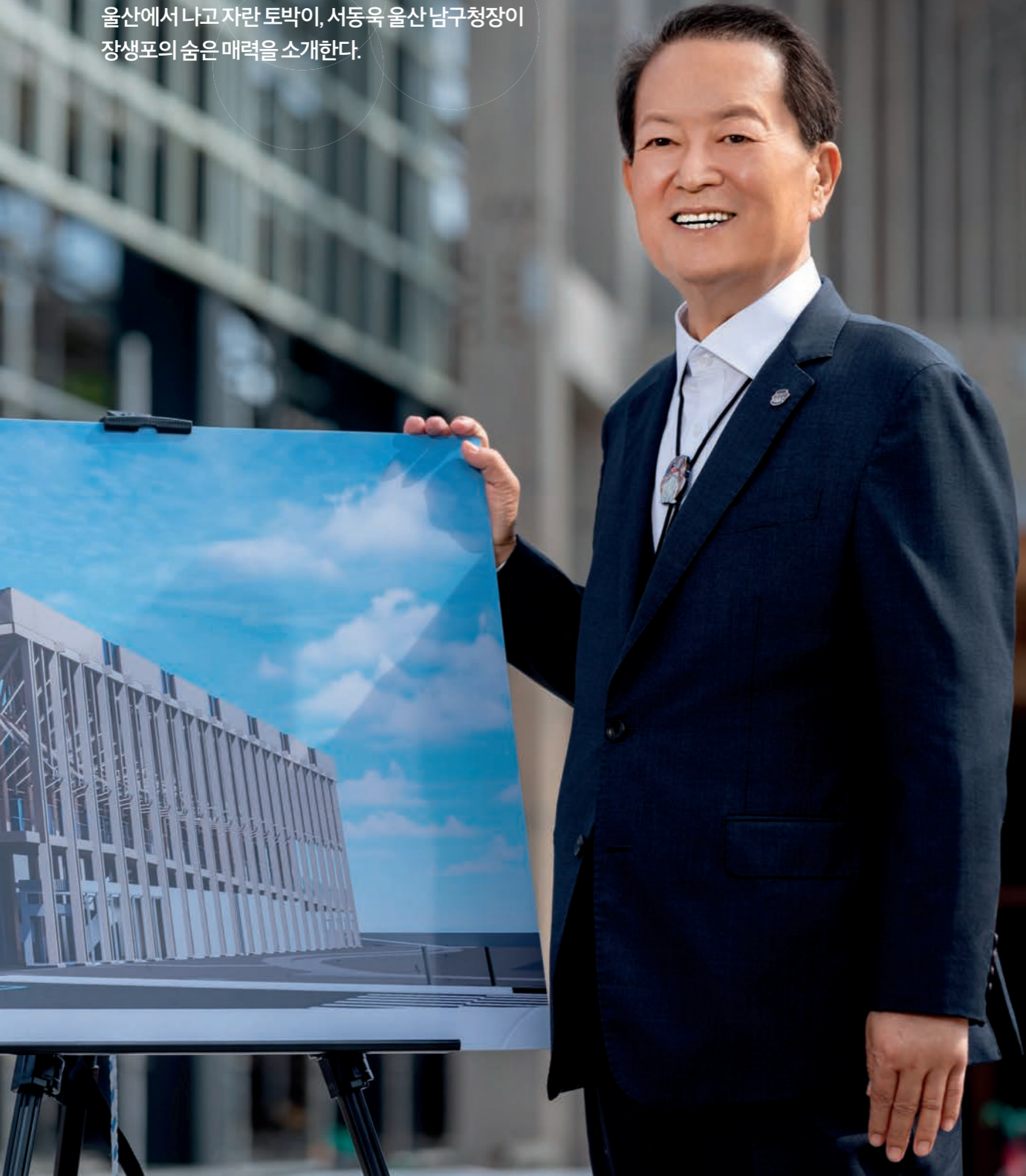
울산 남구는 장생포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장생포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스탬프 투어 북에는 인증 장소별 특징을 반영한 미션형·퀴즈형 콘텐츠가 포함된 단순한 '찍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각 공간의 의미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려면 먼저 장생포 관광 안내소 등 여섯 곳에서 스탬프 투어 북을 수령(책자형과 지도형 중 선택)해야 한다. 스탬프 인증 장소는 세 권역으로 나뉜다. A권역은 장생포엘리카탄랜드·더 웨이브·장생포고래박물관·고래생태체험관·울산항, B권역은 장생포옛마을·웨일즈 판타지움·웨일즈 스윙·웨일즈 카트, C권역은 환상의 섬 죽도 갤러리·창작스튜디오131·장생포문화창고가 포함된다. 권역별로 최소 두 곳 이상 총 여덟 곳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투어 완주로 인정한다. 스탬프 투어 완주자는 장생포 관광 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수령한다. 장생이 인형 키링, 메달 마그넷, 종이 방향제 등 관광 기념품 3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월 100명에게 제공한다.

장생포관광안내소(기념품수령장소)
위치 장생포고래박물관 맞은편
운영 시간 09:00~18:00(월요일 휴무)
문의 052-226-1958

장생포 스탬프 투어
운영 기간 2026년 4~12월
참여 대상 희망자 누구나
문의 052-226-5372(남구청 관광과)

울산 토박이가 추천하는 장생포 여행

고래잡이마을에서 고래 문화마을로 바뀐 장생포. 울산에서나고 자란 토박이,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이 장생포의 숨은 매력을 소개한다.



울산 남구 축제의 중심으로 장생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생포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 주세요. 2008년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생포에서는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입니다. 3월에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출항식을 갖고 장생포에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토요일 밤마다 '장생포 토요일꽃'이 열려 여행의 설렘과 기대감을 고조시키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지난해 40만 명이 다녀가며 전국 최고의 수국 축제로 도약했습니다. 8월에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장생포 호러페스티벌',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에는 '울산고래축제'가 기다립니다. 한편 올해 30회를 맞는 울산고래축제에는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고래문화특구 곳곳에 포근한 인공 눈을 뿌려 낭만적인 겨울 풍경을 연출합니다. 울산 남구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제와 행사로 제2의 관광 전성기를 열어갈 것입니다.

'주말엔 장생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생포 토요일꽃의 인기가 높습니다. 축제 기간이 아닌데도 매주 불꽃을 쏘아 올리는 곳은 국내에서 장생포가 유일하죠. 관람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장생포 토요일꽃은 산업의 빛과 불꽃, 바다가 어우러져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관람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장생포고래박물관 앞 광장입니다.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터지는 불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 크루즈에 탑승해 보세요. 장생포 연안의 야경을 여유롭게 감상한 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불꽃 쇼는 색다른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생포 워터프런트의 '킹웰리 분수대'를 추천합니다.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색색 조명과 물줄기, 불꽃과 장생포 야경이 어우러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장생포를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장생포는 포경의 역사라는 '과거'와 문화 예술이라는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울산 남구는 장생포가 가진 '낯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간의 층위를 문화와 예술로 덧입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생포의 고유함을 어떻게 동시대적 매력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빌려 장생포의 풍경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장생포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은 물리적 쇠퇴를 겪는 장생포를 계속해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 뱃사람들이 출항하기 전에 묵던 신진여인숙을 재단장한 '장생포 아트스테이', 옛 장생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레지던시 '창작스튜디오131', 장생포 주민과 울산 시민을 위한 장생포 문화 지원 센터로 개관한 '새미골 문화마당', 냉동 창고를 리모

델링한 '장생포문화창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공간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낸 '울산 토박이'인 구청장님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울산 남구에는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그중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생포의 저녁노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장생포문화창고 6층의 북카페 지란서거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항구와 울산 공단, 바다가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곳이 장생포이기에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장생포에 새로운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그리는 장생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울산 남구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와 연계한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상반기, 장생포는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겁니다.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최고 시속 4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형 체험 시설 '웨일즈 카트'가 울산 최초 공중그네 '웨일즈 스윙'과 더불어 장생포를 '익스트림 여행지'로 각인시키고, 웨일즈 판타지움과 고래광장을 잇는 조망 명소 '고래등길'과 옛 해군 관사를 활용한 감성 숙소 '고래잠'이 장생포를 머무르고 싶은 여행지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앞에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해양미디어 파사드를 포함한 복합 공간 '더웨이브'가 문을 열고, 환상의 섬 죽도를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도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생포에마음은 보다 다양한 K-콘텐츠로 채워지고,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에는 '장생 조이플렉스'가 세워져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 될 것이며, 옛 해경 초소는 어린이 숙박 시설 및 장생이캐릭터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제조업 중심의 울산 경제구조에 '문화 관광'이라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력이 더해질 울산 남구의 내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봐주세요.

오민서 제공 ©



별빛 따라 걷는 영천

경북 영천은 별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이 계절에 볼 수 있는 별을 관측하고, 신성일기념관에서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은 대스타 신성일의 주요 작품을 살펴본다. 보현산댐 출렁다리에 야간 조명이 켜지면 수면에 비친 빛의 물결이 은하수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별빛이 흐르는 도시, 영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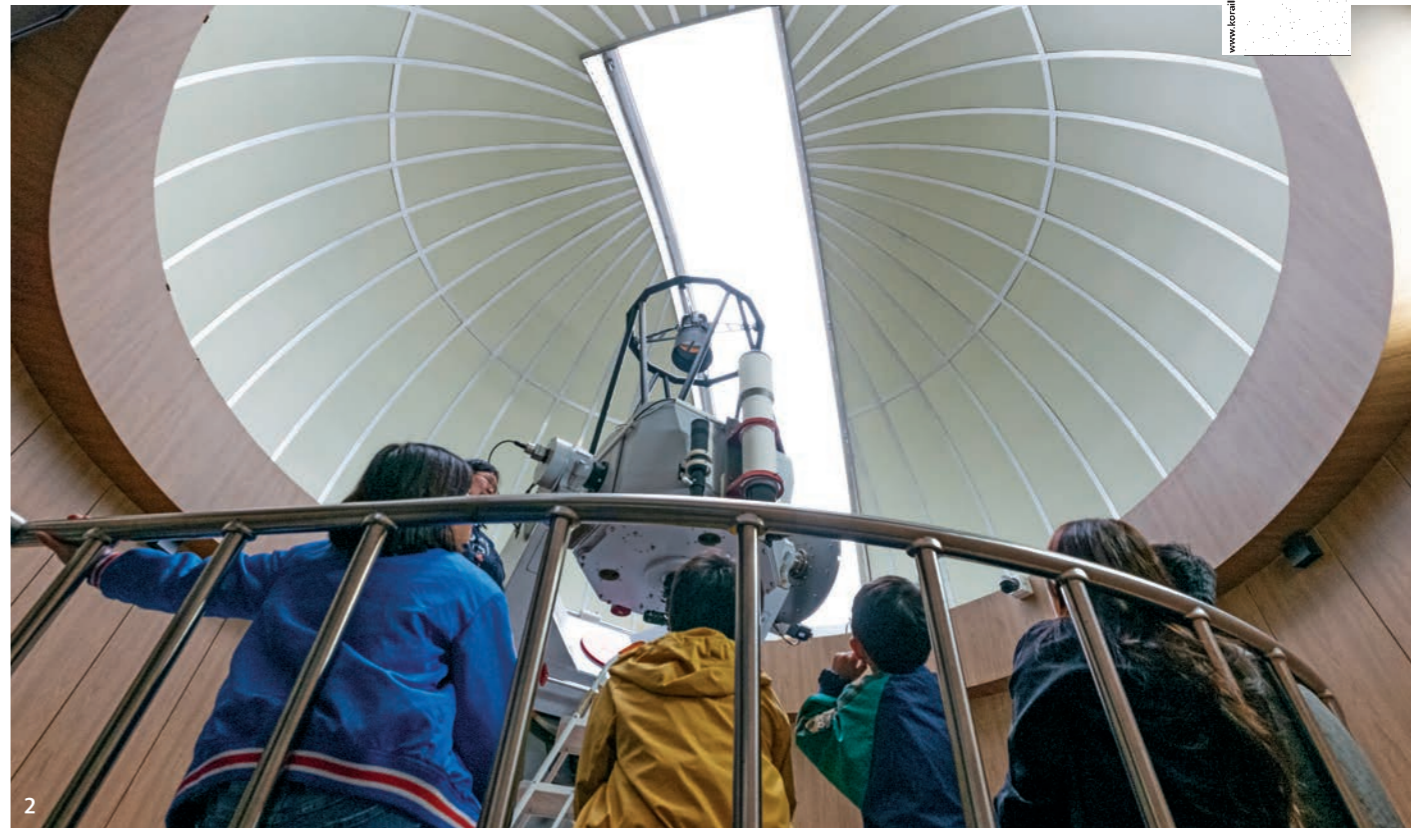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영천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 1 |

미지의 우주로 한 뼘 더 가까이
보현산천문과학관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우주와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싶다면 보현산천문과학관으로 향하자. 보현산천문대 입구 별빛마을에 위치한 보현산천문과학관은 영천에서 천체 관람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췄다. 관람은 천체투영관,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순으로 이어지며, 특별 관람을 선택하면 별자리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천체투영관에 들어서자 천장을 뒤덮은 돔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스크린 아래 놓인 의자에 앉아 등받이를 완전히 뒤로 젖히자 사방이 어두워지고 천장은 밤하늘로 변한다. 달을 비롯해 화성·목성·토성·해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천체가 공전하듯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인다. 이후 작은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선으로 연결되더니 사자, 목동, 처녀 형상의 별자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사자자리에서 유독 빛나는 1등성 레굴루스, 목동자리에서 주황빛을 내는 아르크투루스, 처녀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스피카까지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익힌다. 우주를 가볍게 탐험했다면 이제 두 눈으로 직접 천체를 관측할 차례. 2층 주관측실에 들어서면 국내에서 열 번째로 큰 800밀리미터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늘을 향해 뻗은 경통 아래에 눈을 갖다대니 1억 5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이 눈앞으로 끌려와 표면의 흑점까지 뚜렷하게 보인다. 관측의 하이라이트는 옥상의 보조관측실이다. 달 관측에 최적인 굴절망원경, 성운과 은하처럼 어두운 심우주 관측에 유리한 반사망원경 등 여러 장비를 옮겨가며 천체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경북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문의 054-330-6446



1, 3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보현산천문과학관 바로 옆 천문전시체험관에서 들여다본다. 행성마다 달라지는 몸무게를 비교하고 우주에서의 진공상태를 체험하다 보면 막연했던 우주가 조금은 선명하게 다가온다. 2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는 800밀리미터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으로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별을 관측할 수 있다.



주소 경북 영천시 신성일로 363 문의 054-335-2557



| 2 |

한 시대의 별을 추억하다
신성일기념관

신성일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청춘·액션·멜로·시대극을 넘나들며 한국 영화계를 이끈 '총무로의 전설'이다. 영천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 한적한 괴연동에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신성일기념관이 자리한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2층 높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초상이 먼저 시선을 붙든다. 영화 <맨발의 청춘> 속 젊은 신성일의 얼굴이다.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의 이미지가 총 8512장의 개인 사진과 영화 스틸컷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1층 실감영상실에는 신성일의 데뷔작 <로맨스 빠빠>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가 360도 스크린 위로 펼쳐진다. 화면의 빠른 전환과 과감한 분할 연출이 몰입감을 높여 순식간에 한 편의 영화를 흡입한 듯하다. 2층 상설전시관에서는 배우 신성일과 인간 신성일의 삶을 밀도 있게 들여다본다. 출연 작품 538편, 그중 528편에 주연배우로 출연, 1960년대 당시 영화 한 편당 출연료 45만 원 등 숫자로 정리된 그의 기록은 58년 배우 인생의 필모그래피와 전성기를 응축해 보여 준다. <맨발의 청춘> 속 음악다방을 재현한 체험 존도 지나치기 아깝다. 신성일의 소장품인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영화 속 장면을 연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신성일기념관 관람을 마친 후에는 신성일 배우가 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낸 '성일가'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나무 숲과 반송, 빛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은 고요한 풍경을 이루고, 책약산 자락에 안긴 청기와 한옥이 단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아쉽지만, 신성일 배우와 동시대를 살며 그의 작품에 열광한 이들에게는 성일이 주변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다를 테다.



3

오감을 깨우는 숲속 휴양지
보현산자연휴양림

영천의 명산인 보현산 자락에 자리한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숙박은 물론, 다양한 체험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보현산이 환히 내다보이는 숲속의 집과 야영 데크를 넉넉히 마련한 캠핑장, 그리고 세미나실, 다목적 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도 알차다. 액티비티 마니아라면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산림 레포츠체험관을 놓치기 아깝다. 난이도별 클라이밍 코스와 점핑 타워, 수직 슬라이드, 집책 등 역동적인 레포츠 시설을 갖췄는데, 그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집책(zip zag)이다. 집책은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에 설치된 곡선 레일을 따라 도는 집코스터다. 두 발을 떼는 순간 몸이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가속도가 붙어 꺾이는 구간마다 몸이 튕겨 나갈 듯 크게 흔들린다. 퀘스트를 깨듯 다른 레포츠도 하나씩 체험하다 보면 잠들어 있던 담력이 서서히 깨어난다. 격렬한 움직임 뒤에는 휴식이 필요한 법. 바로 옆 산림치유체험관에 들어서자 차분한 음악이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한 뒤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니 흐트러진 감각이 서서히 제 자리를 찾고, 뭉친 근육도 자연스레 풀린다. 한편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놀이터인 보현산녹색체험터가 있다. 폐교된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너른 운동장에 놓인 언덕 미끄럼틀과 트램펄린 같은 놀이 시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알록달록한 건물 안에는 추억의 교실을 재현한 곳과 라이브 스케치관, 인터랙티브 체험관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특히 좋아한다.

주소 경북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문의 054-336-6618

1 빨간 곡선 레일을 따라 비행하듯 질주하는 집책을 타러 발판을 오르는 모습. 아찔한 높이에 걸음마다 손에 땀이 차고 온몸이 저릿해진다. 2 보현산 자락에 자리한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숙박은 물론, 고요한 휴식과 활기찬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3 4인실부터 16인실까지 다양한 객실을 갖춘 숲속의 집.

4

호수 위로 흐르는 은하수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보현산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보현호에는 특별한 다리가 놓여 있다. 2023년 3월에 준공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총길이 530미터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이 다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X자형 주탑 2개와 중앙을 차지한 노란 별이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오르면 오각형 별 모양의 전망대에 닿는다. 다리 위를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새의 시선으로 출렁다리를 보는 방법도 있다. 바로 집와이어를 타는 것. 와이어에 몸을 맡기면 약 90초 동안 댐을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수면 위를 가로지를 때의 짜릿함이 온몸을 전율케 한다. 해가 진 후에는 이곳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출렁다리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형형색색 불빛이 음악에 맞춰 반짝이면 수면에 밤하늘의 은하수가 펼쳐진 듯하다.



주소 경북 영천시 화북면 암석리 산42-1 문의 054-335-6586

영천중앙공원 주차장

해가 지면 출렁다리에 설치된 형형색색 조명이 음악에 맞춰 반짝인다.



꽃향기 가득한 영천

경북 영천 곳곳에 핀 아름다운 꽃이 여행자를 계절의 한가운데로 이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날, 영천에서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나들이 코스를 제안한다. 대구에서 차로 30분이면 닿는 영천호에는 봄을 제일 먼저 맞는 벚꽃백리길이다.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풍 명소로 이름난 곳으로, 돛자리를 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특히 영천댐에서 보현산천문과학관까지 이어지는 약 40킬로미터 구간은 벚나무가 길게 늘어서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받는다.

5월 초가 되면 영천강변공원에는 보라색 유채꽃이 만개해 강변 일대가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든다. 올해는 청년 플라마켓이 열려 소소한 즐거움을 더한다. 로컬 푸드와 수공예품, 개성 가득한 굿즈를 둘러보는 재미는 물론, 보라 체험 존과 보라 푸드 존까지 마련해 공원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보랏빛 향연이 찾아들 무렵이면 또 다른 꽃이 절정을 이룬다. 5월 중순,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작약이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는다. 전국 최대 작약 주산지로 손꼽히는 영천의 화북면, 화남면, 신녕면, 대전동 일대에서 작약 축제가 열린다. 작약이 만개한 꽃밭은 발길 닿는 곳마다 포토존이 된다. 탐스럽게 피어난 꽃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어 보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Yeongcheon, Following the Starlight

1

Closer to the Unknown Universe Bohyunsan Astronomical Science Museum

Located in Starlight Village near the entrance to Bohyunsan Optical Astronomy Observatory, Bohyunsan Astronomical Science Museum is the only place in Yeongcheon where visitors can observe celestial objects. The experience moves through the planetarium, the main observatory, and the auxiliary observatory, with optional programs offering lectures on constellations. Inside the planetarium, a circular screen covering the entire ceiling draws immediate attention. As the seats recline and the lights dim, the dome transforms into a night sky. The Moon appears, followed by Mars, Jupiter, Saturn, Neptune, and Pluto, as if the planets of the solar system are moving slowly overhead. After this introduction, observation continues through telescopes. On the second floor, the main observatory houses an 800mm Cassegrain reflecting telescope, one of the largest in Korea. Looking through it brings the Sun, hundreds of millions of kilometers away, into clear view, even revealing sunspots on its surface. The highlight awaits at the rooftop auxiliary observatory. Using different telescopes, including refractors suited for observing the Moon and reflectors ideal for deep-sky objects such as nebulae and galaxies, visitors can compare views of the night sky from multiple perspectives.

Address 681-32, Byeolbit-ro, Hwabuk-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330-6446



In Yeongcheon, Gyeongsangbuk-do, stars are impossible to overlook. At Bohyunsan Astronomical Science Museum, visitors observe seasonal constellations, while Shin Seong-il Memorial Hall offers a glimpse into the works of Shin Sung-il, one of Korea's biggest film stars of the 1960s. After sunset, lights illuminate Bohyeonsan Dam Suspension Bridge, casting reflections across the water like a river of stars. In this city, starlight seems to follow wherever you go.



2

Remembering the Star of an Era Shin Seong-il Memorial Hall

Shin Seong-il was a leading figure in Korean cinema from the 1960s through the 2010s, known for his work across genres from youth films and action to melodrama and historical drama. About 20 minutes by car from central Yeongcheon, in the quiet neighborhood of Goeyeon-dong, stands the Shin Seong-il Memorial Hall, which presents his life and career. Inside the gray concrete building, a large portrait covering a two-story wall immediately draws attention. It is the face of a young Shin Seong-il from *Barefooted Youth*.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e image is composed of 8,512 individual photographs and film stills. The permanent exhibition on the second floor traces both the actor and the man. His career is presented through numbers and records, including 538 film appearances, 528 of them as a lead actor, and his fee of 450,000 won per film in the 1960s. Together, these details capture the scale and intensity of his 58-year career. After visiting the memorial hall, many continue to Seongilga, where he spent the final decade of his life. Although the interior is not open to visitors, walking around the house offers a quiet moment of reflection for those who remember his films.

Address 363, Sinseongil-ro,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335-2557



3

A Forest Retreat That Awakens the Senses Bohyeon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Set on the slopes of Bohyeonsan Mountain, one of Yeongcheon's well-known peaks, Bohyeon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offers both accommodation and a range of outdoor activities. At the Forest Leisure Sports Center, visitors can try climbing courses of varying difficulty, along with facilities such as a jumping tower, vertical slide, and ZipZag course. Moving from one activity to the next feels almost like completing a series of challenges. After physical activity, the nearby Forest Healing Center provides a place to rest. Visitors begin with a simple checklist to assess stress levels, then take part in tea sessions and meditation programs. Focusing on breathing gradually restores a sense of balance and releases tension in the body. About 15 minutes away by car is the Bohyeonsan Green Experience Center, an interactive space designed especially for children. Converted from a former middle school, it features recreated classrooms, a live sketch zone, and hands-on exhibits, making it a popular stop for families.

Address 334, Baenamujeong-gil, Hwabuk-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336-6618

4

A Milky Way Over the Lake Bohyeonsan Dam Suspension Bridge

Bohyeon Lake, a reservoir created by the construction of Bohyeonsan Dam, is home to a distinctive suspension bridge completed in March 2023. Stretching 530 meters, it is the second longest of its kind in Korea. Two X-shaped towers support the bridge, each marked by a yellow star motif, while a spiral staircase beneath one tower leads to an observatory designed in the shape of a five-pointed star. Walking across the bridge offers wide views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but another way to experience it is by zip wire. Suspended on the line, visitors glide toward the dam for about 90 seconds, passing just above the water. After sunset, the bridge takes on a different character. Lights gradually illuminate the structure, and as colors shift in sync with music, reflections shimmer across the water, creating a scene reminiscent of the Milky Way.

Address San42-1, Ipseok-ri, Hwabuk-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335-6586

오늘의 기분을 뜨다

땡스의 신미하 대표가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과 바늘을 건넨다.
내면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뜨개를 제안하는 것이다.





1

을 들일 수 있도록 뜨개어 사전, 바늘 사이즈 변환기, 배색 플래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튜토리얼 영상도 올렸다.

뜨개로 돌보는 마음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고민하던 신 대표는 책상 위 공간을 취향대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문화를 떠올렸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사랑받는 직장인의 필수템 스트레스 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름하여 '스뜨레스 볼'. 부드러운 실을 만지고 뜨는 과정에도, 스텔레스 볼을 주무르는 순간에도 기분이 전환되길 바랐다. 완성품에 붙인 충혈된 눈 스티커는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다음 간단한 코바늘 기법을 이용해 시들지 않는 반려 식물을 구상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 모양으로 형태를 잡고, 화분에 가슴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칩을 넣었다. 언제나 책상 한쪽에서 당신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Cheer up 선인장 씨'라고 지었다. 신 대표는 마음이 건조할 때 편백나무 칩에 물을 뿌리고, 모자에 소량의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 틸틈이 환기하라고 조언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루틴을 제안한다. "매일 오후 세 시가 되면 손을 씻고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을 바르세요. 실제로 손을 씻는 행위는 뇌에 일종의 리셋 버튼처럼 작용해 생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요. 반지를 끼고 있다면 선인장의 팔에 잠시 맡기세요." 이 외에도 네 잎 클로버 펜 커버, 반려견 배변 봉투 케이스, 요가하는 곰 인형의 털모자와 스웨터 등 일상의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 줄 재치가 돋보이는 아이템을 소개했다.

실로 잇는 어제와 오늘

신미하 대표는 완제품과 DIY 키트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워크숍도 활발히 운영한다. 2024년에는 인천 원도심 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뜨개로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 한 독일인이 기차가 연착되는 시간대별로 색상을 바꿔 가며 뜬 목도리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고 감정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요. 오늘 하루를 실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2



3

- 1 뜨개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모두의 코바늘 세트. 2밀리미터부터 10밀리미터까지 크기별 12종으로 구성됐다.
- 2 간단한 코바늘 기법으로 뜨는 'Cheer up 선인장 씨'. 마음이 건조할 땐 화분 속 편백나무 칩에 물을 뿌리고, 모자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 환기한다.
- 3 한 달간 색으로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대비늘로 걸뜨기와 안뜨기 하는 법을 배웠다.
- 4 신미하 대표는 수감생이 코를 잘못 넣었을 땐 침착하게 해결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실을 풀어 다시 뜨면 된다고 말한다.

뜨개에 매료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 연희동의 뜨개용품 전문점 바늘이야기에 들어서면 매장을 둘러 장바구니에 색색의 실을 담은 풍경이 펼쳐지고,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씨비하우스에서는 바늘을 손에 쥔 뜨개 애호가를 쉽게 만난다.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는 뜨개 모임은 물론, 조도를 조절할 극장에서 영화와 뜨개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상영회도 열린다. 전 세대가 뜨개를 여가 활동으로 택한 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 마음이 차분해지고, 손수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본다.

마인드 피트니스에 뜨개를 접목한 브랜드도 생겼다. 신미하 대표가 이끄는 '맹스(thnx)'가 그중 하나다. 10여년간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한 신 대표는 직장인 시절 집에서도 업무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어느 날 엄마를 따라 뜨개를 시작했는데, 한 코 한 코 뜨다 보니 복잡한 머릿속이 말끔히 비워졌다. 밤마다 목표를 잡지 않고 뜨는 행위에만 몰두했고, 많은 사람과 뜨개로 휴식을 되찾는 법을 나누고 싶어 2022년 8월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누구나 이 분야에 쉽게 발



4



- 1 자투리 실로 완성한 한뼘 인형. 원하는 색의 실을 칭칭 감고 보들보들한 실로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심었다.
- 2 신미하 대표는 의뢰받은 작업에 사용할 실을 노트에 붙여 보관한다. 또 스스로에게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네 잎 클로버 모양 커버를 씌운 펜을 쓴다.
- 3 친환경 소재로 휠체어 가드를 만드는 씨오씨랩과 협업한 결과물.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를 활용해 훌륭한 옷자락이 바퀴살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는 자전거용 드레스 가드를 구상했다.
- 4 반려견과 산책할 때 필요한 배변 봉투 케이스. 땡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아거와 오호리 캐릭터로 제작했다.



© (주)씨오씨랩

“뜨개를 하면 엉켜 있던 생각이 스르르 풀려요. 몇 코인지 세고, 코를 잘못 끼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다 보면 고민도 잊어버리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루하루를 색으로 기록해 보고 싶었다. 뜨개의 기초인 걸뜨기와 안뜨기를 다시 배우기 위해 대바늘을 들고 신 대표 옆에 앉았다. 오른 쪽 바늘을 왼쪽 바늘 밑에 찢어 넣고,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고, 코를 빼고 옮기기를 반복하며 뜨는 과정을 조금씩 손에 익혔다. 걸뜨기는 실이 바늘 뒤에, 안뜨기는 실이 바늘 앞에 있어야 한다고 읊조리며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렸다. 중간에 코가 아닌 구멍에 바늘을 넣어 여러 번 풀었다 다시 뜨고, 자꾸 갈라지는 울실 때문에 꽤나 애를 먹었다. 초보자에게는 숨을 넣은 두툼한 실을 추천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했다.

실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쪽가위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묘한 쾌감이 느껴진다. 과거의 감정은 과거에 두고 오겠다는 다짐 같기 때문이다. 파란색 실로 교체해 두 단을 더 뜯 후 세 개의 실이 나란히 놓인 키트를 받았다. 이제 상자에 담긴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실에 각각 기쁨,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부여하고, 그날 기분에 맞는 실로 뜨개를 하면 된다. 한 달을 목표로 하루에 적어도 15코씩 뜨기로 했다. 주황색은 아쉬움, 보라색은 만족감, 파란색은 열의로 정했다. 과연 한 달이 지난 뒤 감정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기대감이 차오른다.

“머리맡에 한뼘 인형도 두세요.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신 대표가 키트를 건넨 후 자투리 실이 가득

한 가방을 들고 나온다.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작은 인형은 ‘과묵한 친구’ 또는 ‘한뼘 인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미리 만들어 놓은 몸통에 원하는 색상의 실을 칭칭 감고, 보들보들한 촉감의 실로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심어 주면 완성이다. 펜으로 입을 그릴 때 은은한 미소를 표현하고 싶어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한뼘 인형을 볼 때마다 나만 아는 작은 미소를 떠올릴 테다. 때론 새끼손가락만큼 작은 인형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

땡스 사무실 한편에는 네 개의 캐릭터가 모여 각자 여가 시간에 집중하는 일러스트 액자가 놓여 있다. 바다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바늘을 움직이는 아거, 우디향 핸드크림을 바르고 보들보들한 털실을 만지며 뜨개를 하는 돌프, 아무 실이나 잡히는 대로 골라 뜨는 오호리, 하루동안 마음에 쌓인 부정적 감정을 뜨개로 해소하는 땡씨까지. 신 대표는 그림 속 풍경처럼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좋아하는 장소에서 취향껏 뜨개를 즐기길 바란다. “뜨개를 하면 엉켜 있던 생각이 스르르 풀려요. 몇 코인지 세고, 코를 잘못 끼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다 보면 고민을 잊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인생은 기분 관리라는 말에 공감한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괴로워하지 말고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며 삶을 윤택하게 바꿔야겠다.

산골 마을의 예술적 변신, 계촌 클래식 축제

해발 700미터에 자리한 계촌마을은 매년 여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아트 홀로 변신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원도 평창군과 마을 주민이 이루어 낸 기적, 계촌 클래식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폐교 위기에서 피어난 별빛 협주곡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주민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계촌마을에 기적 같은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2009년 계촌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마을은 이제 매년 수천 명의 관객이 찾는 '대한민국 클래식 성지'로 탈바꿈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전교생이 단원이 되어 계촌별빛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것이다. 강릉시교향악단 출신의 권오이 교장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 손에 악기를 쥐여 주었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2012년에는 계촌중학교 계촌별빛오케스트라 창단도 이루어졌다. 시골 마을의 작은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한 '예술마을 프로젝트'였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공익 사업인 예술마을 프로젝트에 2015년 계촌별빛오케스트라가 낙점된 것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교육과 다채로운 문화 교실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민·관·학이 하나 된 이상적인 문화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세계 정상급 음악인이 무대에서 서다

계촌마을에 클래식 무대가 처음 열린 것은 2015년, 제1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이하 계촌 클래식 축제)였다. '첼로와 판소리, 마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첫 축제에서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 총 19팀이 관객을 만났다. 거리에선 클래식 음악살롱, 미디어 전시 등 주민과 관객이 격의 없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축제가 펼쳐졌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도 축제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CMK 앙상블(구 온드림 앙상블) 등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2022년 축제는 '별빛 콘서트' '파크 콘서트' '미드나잇 콘서트'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운영되었다. 월슨 응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았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인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등이 참여했다. 축제가 10주년을 맞은 2024년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백건우, 이진상 등 국가대표급 피아니스트 3인방이 무대에 올랐으며, 사전 예약에만 1만 7000여 명이 몰렸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클래식 축제로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지휘자 김선욱과 정치용, 성악가 사무엘 윤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가세해 클래식의 정수를 선보였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으로 구성된 CMK 앙상블이 플루티스트 이에린, 첼리스트 주연선과 함께 무대를 꾸며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뜻깊은 무대도 선보였다. 지난해에 개최된 제11회 축제도 열기가 뜨거웠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피아니스트 김태형, 소프라노 홍혜란과 국립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는 물론, 해금과 피아노, 하모니카와 색소폰의 협연도 돋보였다. 재즈 보컬리스트 나운선은 '미드나잇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음색으로 계촌마을의 밤을 황홀하게 물들였다.





1, 3 계촌 클래식 축제의 주인공이자 계촌마을의 꿈나무, 계촌별빛오케스트라 단원들. 타 지역에서 전학을 올 정도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 축제 기간엔 계촌마을 곳곳에서 계촌길 콘서트가 열린다. 4 각종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객들에게 관람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5 하늘색 천막이 휘날리는 파크 콘서트장은 축제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물들인다.

지역 상생의 감동적 모범 사례

계촌 클래식 축제의 진정한 매력은 정형화된 공연장을 벗어난 공간의 미학에 있다. 울창한 계수나무 숲이 무대의 배경이 되는 '별빛 콘서트'는 자연의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제2의 악기가 되는 특별한 청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2024년 첫선을 보인 '비닐하우스 콘서트'는 농촌의 일상적 공간인 비닐하우스에서 정교한 실내악을 감상하는 파격적인 기획으로 찬사를 받았다. 낮 시간의 '파크 콘서트'에서는 해금과 재즈 피아노의 만남, 하모니카와 색소폰의 듀오 무대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졌다. 여기에 시인 안희연의 강연이 곁들여진 '계촌살롱', 골목이나 하천 등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계촌길 콘서트'와 각종 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관람 이상의 깊은 몰입감을 제공했다.

계촌 클래식 축제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과 함께하는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1년간 14만여 명의 관객을 유치하며 일상 속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축제 기간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는 계촌마을만의 따뜻한 인심을 전하며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축제의 가장 감동적인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로 불리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의 공연이다. 계촌초·중학교 전교생이 단원으로 참여해 세계적 거장들과 한 무대에 서는 순간이다. 예



술이 한 아이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모여 마을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은 매년 현재 진행형으로 계촌마을의 숲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클래식이 낯설었던 주민들도 이젠 클래식과 함께하는 삶에 자부심을 느낀다.

해발 700미터에 자리한 계촌마을은 이제 가로등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르고, 농산물 상자에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란 농작물"이라는 문구가 붙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벽화와 새롭게 단장한 클래식 공원, 마을 곳곳의 조형물은 방문객에게 일상 속 예술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최근에는 축제의 영향으로 편의점은 물론, 감각적인 카페가 문을 여는 등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방림면 계촌리부터 방림리, 운교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은 기획 단계부터 축제에 참여하며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낯설기만 하던 클래식을 애정으로 품어 안은 계촌리 주민들은 예술마을 프로젝트가 피워 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1비날하우스에 마련한 공연 무대. 의외로 아늑한 공간에 색다른 분위기가 더해져 축제의 즐거움이 한층 배가되었다.
 2음악 거장들의 얼굴로 장식한 계촌마을 거리 풍경.
 3계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아트월에 지난 10년간 계촌 클래식 축제를 빛낸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담겼다.
 4, 5, 6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첼리스트 한재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등 2026년 계촌 클래식 축제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4
 © 이상환



5



6
 © 이상환

계수나무 숲을 무대 삼아 여름밤의 낭만 속으로

올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12회 계촌 클래식 축제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1일 차 '별빛 콘서트'에는 축제의 마스코트인 계촌별빛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피아니스트 김송현,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가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한다. 2일 차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들로 구성된 CMK 앙상블과 플루티스트 이예린의 '햇살 콘서트'가 낮 시간을 수놓는다. 이어지는 '별빛 콘서트'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송이 지휘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이 숲속의 밤을 절정으로 이끌고,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달빛 콘서트'가 한밤의 낭만을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솔루스브라스퀸텟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대미를 장식해 잊지 못할 여름날의 무대를 완성한다.

울창한 계수나무 숲이 곧 무대인 계촌 클래식 축제는 자연의 소리가 제2의 악기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KTX를 타고 평창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휴식이 된다. 계촌마을 꿈나무들과 세계적 거장이 한 무대에서는 몽클한 순간, 울창한 숲이 객석이 되고 바람이 악보를 넘기는 계촌 클래식 축제는 울어봄 일상에 가장 아름다운 삽화를 찍어 줄 것이다. 예술이 어떻게 지역의 풍경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는지 그기적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2026 계촌 클래식 축제 예매 방법

신청기간 5월 6일(수)까지
 신청방법 네이버예약(네이버에서 '계촌 클래식 축제' 검색)
 당첨자 발표 5월 8일(금), 개별 안내



2026 계촌 클래식 축제 주요 공연

	6월 5일(금)	6월 6일(토)	6월 7일(일)
15:00 햇살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MK 앙상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 플루티스트 이예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루스브라스퀸텟
19:00 별빛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촌별빛오케스트라 (계촌초·중학생)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피아니스트 김송현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아드리앙 페리송) 첼리스트 한재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1:00 달빛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리스트 박규희 	

제작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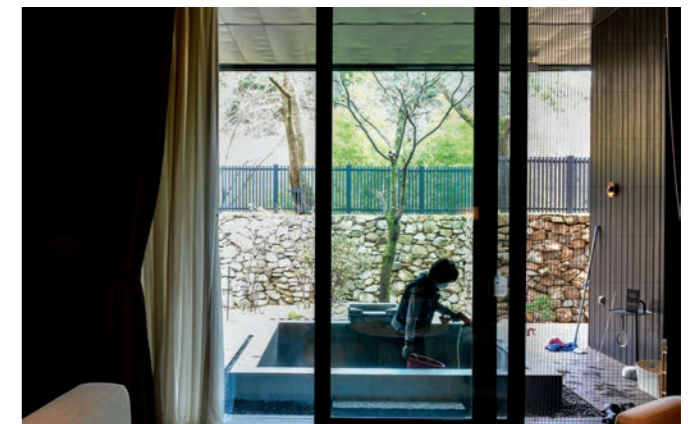
유원재를 만드는 사람들

충북 충주의 온천 호텔, 유원재에 머무르면 어느 것 하나도 신경을 거스르는 게 없는 편안함을 느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유원재를 만드는 사람들 덕분이다.



온천수의 순수함을 지키는 미화팀

유원재의 체크인 시간은 오전 11시. 그런데 투숙객이 객실을 비우기 1시간 전부터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곳이 있다. 바로 대중탕이다. 유원재는 16채의 독립된 객실마다 프라이빗 온천을 갖췄고, 남녀 대중탕과 대여탕도 있다. 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곳을 청소 및 정비하는 것으로 유원재 스태프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3만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솟아오른 수안보의 천연 온천수,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귀한 샘물이 투숙객의 피부에 닿기 전에 대중탕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대중탕의 청결 유지는 타협 없는 원칙으로 삼는다. 탕이 바닥을 드러내면 강력한 고압 호스를 손에 쥔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사투가 시작된다. 화강암과 편백나무 등 자연 소재로 이루어진 노천탕은 미세한 결 사이사이를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중탕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것은 기본이고, 물살이 강한 고압 호스로 물때를 남김없이 씻어낸다. 대중탕의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어록 배터리를 점검하는가 하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잡아내는 시설 관리자의 예리한 손길이 더해지면 비로소 작업이 마무리된다.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마친 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객실의 프라이빗 온천 청소가 바로 이어진다.





사계절 풍경을 디자인하는 조경 팀

16개 전 객실의 프라이빗 정원, 레스토랑에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후원, 카페와 라운지, 회랑을 감싼 물의 정원, 그리고 돌담 너머 대나무 숲까지, 유원재 조경 팀의 백스테이지는 무려 5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호텔 부지 전체다. 설계 과정부터 수안보에 뿌리 내린 나무를 최대한 베어 내지 않고 땅이 가진 생명력을 존중하는 것이 유원재의 자연주의 철학. 조경 팀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객실에서 정원을 바라볼 때 흙여 나뭇가지 하나가 시선의 여백을 방해하진 않는지, 이끼가 머금은 수분이 적정인지, 매 순간 세밀하게 조율하며 유원재의 풍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조경 팀의 역할이다. 꽃과 나무, 풀 한 포기까지 계절감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 덕분에 철마다 다른 색과 분위기로 영감을 불어넣고, 보는 것만으로 지극한 휴식을 경험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원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투숙객이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길 때, 조경 팀은 정원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위질을 하며 다음 계절의 풍경을 설계한다.



50가지 체크리스트로 완벽을 기하는 객실 정비 팀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정돈된 공기와 바스락거리는 침구의 감촉. 객실 정비 팀은 투숙객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객실의 청결을 책임진다. 전 객실을 각각 한 채의 집으로 설계한 것이 유원재 건축의 콘셉트. 침실과 거실, 욕실에 더해 정원까지 갖춘 객실은 최소 73제곱미터부터 최대 129제곱미터까지 규모가 상응해 객실 정비 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크아웃 후 미화 팀이 객실 내 온천 청소를 끝내면 이제부터 객실은 객실 정비 팀의 무대가 된다. 먼저 침실의 침구를 모두 걷어 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된다. 2인 1조로 호흡을 맞춰 이불보를 일일이 분리한 후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생활복과 어메니티, 수건 등을 정돈 및 교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스펙션 과정이 남았다. 첫잔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실금이 있는지, 커피포트나 시트에 머리카락이 남았는지, 고객의 성별과 인원수에 맞춰 슬리퍼가 제대로 비치되었는지, 공간을 감싸는 향기는 적절한지 등을 객실 인스펙터가 매의 눈으로 예리하게 체크한다. 이처럼 까다롭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합격점을 받은 객실만이 비로소 유원재 고객들을 맞을 자격을 얻는다.





섬세한 환대로 고객을 맞는接客 팀

유원재의 서비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세심함은接客 팀의 손끝에서 비롯된다. 주무대는 객실과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 미션. 체크인 후 고객이 빠져나간 객실에接客 팀은 정성스럽게 쓴 웰컴 카드와 샴페인을 세팅하고, 미니바를 확인해 빈 음료를 채워 놓는다. 다구와 함께 비치하는 차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와인글라스도 다음 투숙객의 인원수대로 준비한다.接客 팀의 활약은 고객이 입실 전후 반드시 들르는 카페에서도 빛난다. 유원재 카페는 수안보의 사계절을 한눈에 담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쉼터이자 달콤함을 채우는 에너지 충전소. 하루 두 번, 지역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수제 디저트와 소프트아이스크림, 정성껏 우린 차와 청량감 넘치는 음료가 사계절 다른 메뉴로 고객을 맞는다. 레스토랑 미션에서도接客 팀의 임무는 막중하다. 조식과 석식이 제공되는 이곳에서接客 팀 직원은 투숙객에게 서빙은 물론, 각 메뉴와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간다.



유원재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프런트

프런트는 유원재를 찾은 고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 유원재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프런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텔의 거대한 시스템을 조율하고, 고객의 여정을 완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돕는 것은 기본, 일대일 밀착 안내를 통해 고객의 등록 카드를 세팅하고, 호텔 내 시설과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객실 정비 팀,接客 팀, 시설 팀 등 호텔의 각 부서를 연결해 호텔이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고객의 요청 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해 고객이 불편 없이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유원재의 기프트 숍을 관리하는 것도 프런트의 중요한 업무다. 유원재 기프트 숍은 고객이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을 하는 사이, 혹은 카페를 이용하다 들러 유원재의 감각이 담긴 아이템을 감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의 미학과 장인 정신이 깃든 다기와 전통주, 액세서리 등은 품격 있는 기념품으로 손색이 없다. 기념품 판매점이자 갤러리이기도 한 만큼 공간 전체의 톤 앤드 매너가 유원재의 철학과 잘 부합하도록 정성을 다한다.





최고급 다이닝을 선보이는 조리 팀

유원재의 숙박료가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오픈 런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 유로는 높은 수준의 다이닝도 한몫한다. 숙박료에 다이닝이 포함된 것. 서울 청담동 파인다이닝 수준의 요리를 선보이는 주인공들은 조리 팀에 있다. 하루 16그룹의 조식과 석식을 책임지는 조리 팀 수장은 김유재 총괄 셰프다. 미국과 캐나다, 남미, 일본에서 정교한 이탈리아·프랑스·일식 요리를 섭렵한 실력자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감각적인 레시피를 창조한다. 오후 3시, 레스토랑 미션의 문이 열리기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았지만 김 총괄 셰프의 지휘 아래 조리 팀의 손길이 분주하다. 한 입 거리 안주 4종을 곁들인 주안상을 시작으로 최고 등급 한우와 싱싱한 해산물, 충주에서 난 제철 채소와 과일 등으로 차린 9코스 요리가 2시간 동안 이어지니 밀작업을 해 두어야 할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음식을 담을 도자기와 유리, 미니 화로 그리고 나무 기물 등도 세심히 살펴 식탁의 차림새를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유원재의 식탁을 책임지는 조리 팀. 그들의 땀방울과 정성이 있기에 유원재의 명성은 계속 이어진다.

제작 지원 유원재



made in

삼척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SAMCHEOK

no.17

1



동해의 절경과 파도가 빛은 예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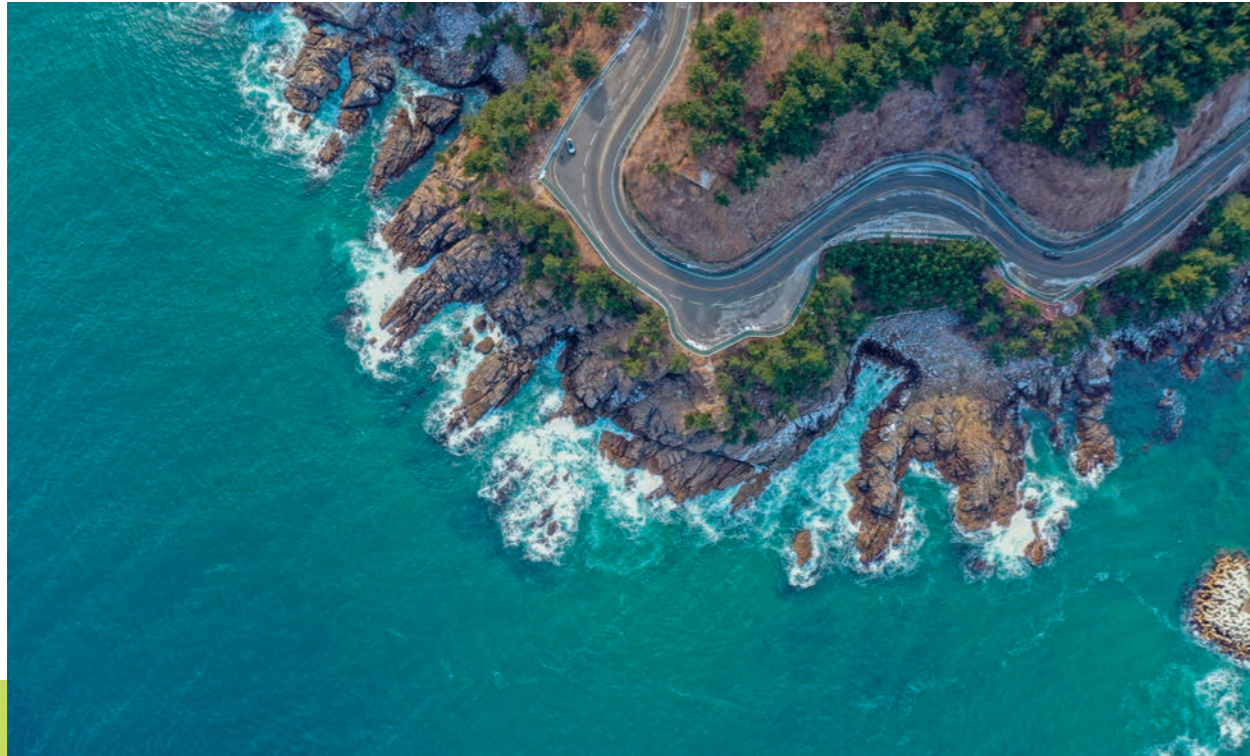
이사부길 & 삼척해상스카이워크

동해의 푸른 정기를 받고 싶다면 이사부길로 향하자. 삼척해수욕장에서 삼척항까지 이어지는 약 4.8킬로미터의 길은 2000년 새해를 맞이하며 개통돼 '새천년해안도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 이사부길이라는 명칭은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것으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기 위해 출항했던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드라이브와 산책이 모두 가능한 이 길을 따라가면 기암괴석과 망망대해가 빛은 한 편의 대서사시가 펼쳐진다. A, B, C 세 구간으로 나뉜 이사부길은 모두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오르막과 내리막 덕분에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사부광장에서 소망의 탑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사자바위가 나오는데, 바위 오른쪽에서 바라봐야 그 형상이 제대로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우산국 정벌을 마친 이사부 장군의 배에서 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척을 지키기 위해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엔 삼척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 길이 100미터, 높이 77미터 규모의 해상 스카이워크가 들어선 것이다. 해안에서 바다를 향해 U자형으로 뻗은 삼척해상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을 선사한다. 발밑으로 파도의 출렁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유리 바닥 구간이 특히 인상적이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삼척해상스카이워크는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기도 하니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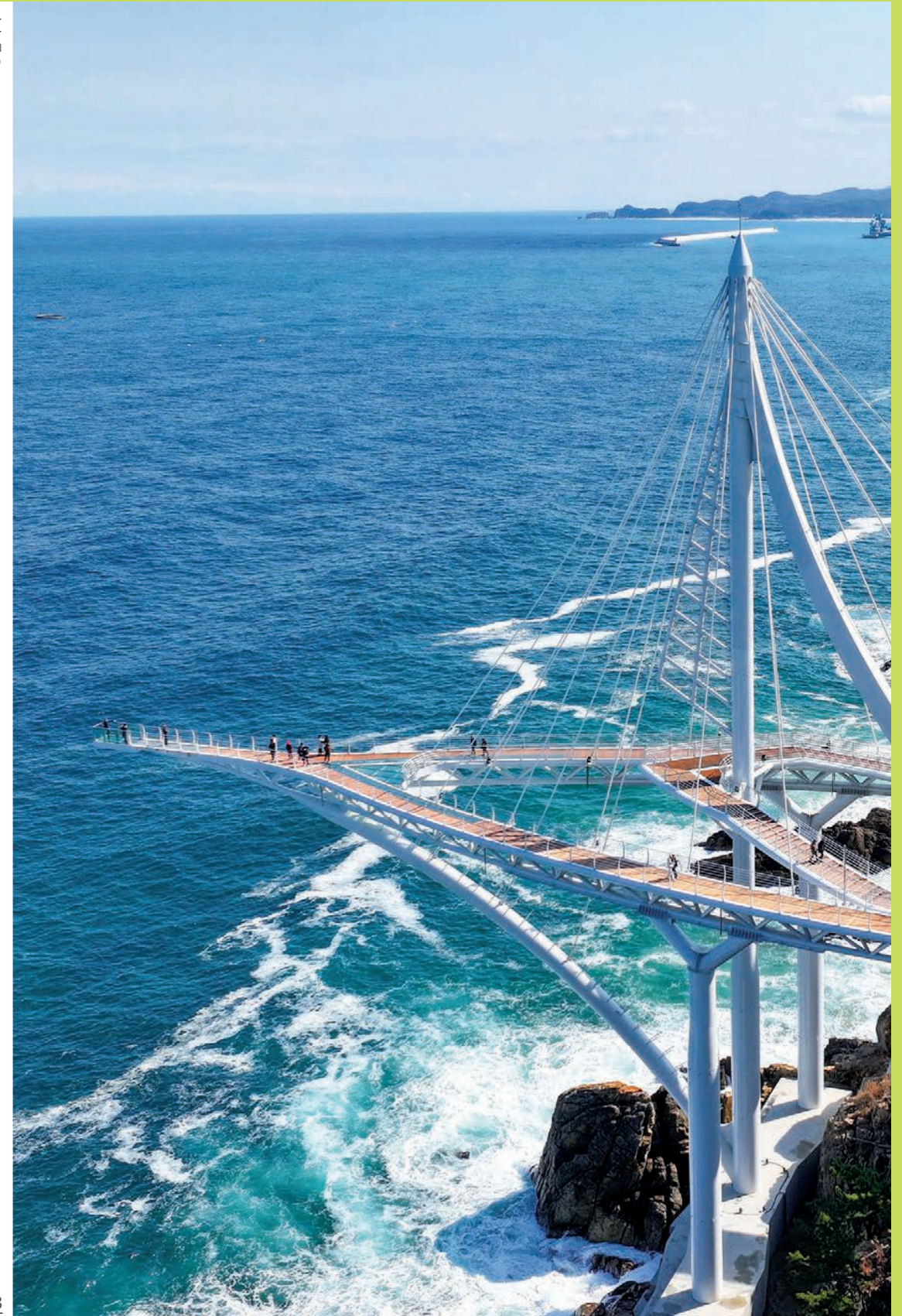
주소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1-18(이사부길), 정하동 5-9(삼척해상스카이워크)

- 1 삼척해상스카이워크 끝자락에 서면 수평선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진다.
- 2 이사부길에서는 푸른 바다와 해송, 기암괴석뿐 아니라 삼척의 항구와 해변을 두루 만난다.
- 3 삼척해상스카이워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



© 삼척시



3



1

- 1 시내 중심에 자리한 봉황산은 입구에서 정상까지 걷는 데 30분 정도 소요되며, 전망대인 정자를 돌아오는 코스는 1시간 30분 가량 걸린다.
- 2 삼척활기치유숲의 중심 지점인 치유 센터에서는 족욕, 온열, 다도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3 전통차를 마시며 족욕 테라피를 즐긴다.
- 4 삼척활기치유숲에는 시작점부터 종착점까지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이어진다.



2



3



4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채우는

삼척활기치유숲 & 봉황산산림욕장

삼척의 아름다움을 오직 코발트빛 바다에서만 찾으려 했다면 아직 삼척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해안선 뒤편에는 내륙 깊숙이 뿌리 내린 소나무 숲이 있다. '늙지 않으며 활기 가득한 동네'라는 뜻의 미로면(未老面) 활기리(活氣里)에 자리한 삼척활기치유숲이다. 일반 소나무와 달리 줄기가 곧고 마디가 길며 껍질이 붉은 금강송이 빼곡하다.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가득한 숲길은 세 가지 난도로 분류해 산책길을 총 16개 코스로 조성했다. 모든 코스가 계곡을 따라 이어진 덕분에 발걸음마다 청아한 물소리가 동행한다. 숲 한복판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건물의 치유센터가 자리한다. 족욕, 온열, 다도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상잉불, 우드버닝, 명상 등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봉황산산림욕장도 삼척에서 꼭 들러야 할 힐링 포인트다. 해발 148미터 봉황산 꼭대기에 일명 육향대라고도 하는 신선각이 있고, 맨발 걷기 숲길과 체육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덕분에 삼척 시민이 즐겨 찾는 쉼터로 사랑받는다. 잘 가꾼 나무 덕양 옆으로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피어 장관을 이룬다. 정상에 오르면 시내 전경과 함께 삼척향을 낀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651-230(삼척활기치유숲), 정상동 362(봉황산산림욕장)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지하 세계

환선굴 & 대금굴

거대한 입구부터 방문객을 압도하는 환선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로, 약 5억 30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서늘한 공기와 함께 기묘묘한 동굴 생성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머리형 석순, 도깨비방망이, 마리아상, 만리장성 등 생김새에 따라 비슷한 모양의 이름이 붙었다. 환선굴에 가려면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다. 매표소부터 해발 500미터 지점의 입구까지 가파른 길을 30분 넘게 걸어야 비로소 거대한 동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환선굴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감탄을 자아내는 반면, 대금굴은 살아 있는 생명체 같은 동굴 생성물이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빨아들이듯 목 소리를 삼키는 8미터 높이의 장쾌한 비룡폭포 소리에 몸이 얼어붙는 듯하다. 주름진 커튼을 닮은 종유석 '커튼'과 계단식 눈처럼 층을 이룬 석회암 '휴석소' 등 신비로운 모습이 곳곳에 펼쳐진다. 만물상 지역에는 지름 5센티미터, 높이 3.5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인 막대형 석순이 자리한다. 종유석과 석순이 100년에 1센티미터씩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동굴 생성물에 깃든 유장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대동굴관리소)

1 독특한 종유석과 지하 폭포, 지하 호수로 이뤄진 대금굴은 수억 년의 세월을 품고 있다.
 2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답게 압도적인 스케일과 공간감을 자랑하는 환선굴 내부.



1



2



3



4

마을과 숲·바다를 품어안는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 삼척해상케이블카

삼척의 명물인 해상림과 기암괴석을 가장 편하게 감상하는 방법은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레일바이크를 타는 것이다. 총길이 약 5.4킬로미터 복선으로 운행하는 삼척해양레일바이크의 정거장은 공촌항과 용화해변 근처에 있다. 바이크에 앉아 바퀴를 천천히 굴리다 보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보이지 않던 바닷가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에 젖어 든다. 루미나리에와 레이저로 꾸민 해저터널을 지나면 다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는 정거장에 도착한다. 1시간 정도 이동하며, 도착지에는 다시 출발점으로 데려다줄 셔틀버스가 준비돼 있다. 지상에서 삼척의 속살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삼척의 품을 굽어볼 차례. 용화해변에서 장호항까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874미터 길이 삼척해상케이블카에 오르면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의 투명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원도 유일의 해상 케이블카인 삼척해상케이블카는 용화리와 장호리를 가로지르며 짧지만 인상적인 여정을 선사한다. 용 모양의 두 역사가 마주하는 가운데, 빨간색 케이블카 2대가 중간 철탑 없이 874미터 구간을 미끄러지듯 오간다. 케이블카에 몸을 실으면 창밖으로 고요한 바닷가 마을과 빨간색 등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바닥 일부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발밑으로 바닷속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진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삼척해양레일바이크 공촌정거장), 삼척로 2154-31(삼척해상케이블카 용화역)

- 1,2 삼척해상케이블카를 타면 비취색에서 짙은 감청색으로 바뀌는 동해의 명암을 감상할 수 있다.
- 3 해상림과 기암괴석을 가까이에서 천천히 관찰하는 레일바이크 여행.
- 4 레일바이크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가 연출되는 3개의 터널을 통과한다.

자연에 품인 누각과 바다를 품인 건축물

죽서루 & 이사부독도기념관

관동팔경 제1경이자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죽서루. 2023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최초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 문인 김극기가 죽서루에 올라 지은 시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12세기경으로 추측된다. 죽서루 지붕 아래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조선 시대 문인들의 편액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중에서도 송강 정철이 술잔을 기울이며 <관동별곡>을 구상하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그가 노래한 '옥빛 물길' '신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장면인가 싶다. 자연 암반과 초석 위에 자리한 죽서루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해 질 녘이다. 죽서루 뒤쪽 오십천 방향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삼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사부독도기념관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 개관한 이사부독도기념관은 이사부 일대기를 영상으로 감상하는 이사부실감영상, 독도의 사계절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독도미디어아트관을 포함해 관광 안내 센터, 복합 휴게 공간 등 네 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동과 동 사이를 이동하며 전시를 감상하는 것이 인상적인데, 건물 사이를 감싸는 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독도의 이미지만 아니라 바다를 매립한 땅에 지었다는 역사성을 상징한다. 우리 땅 독도를 지켜 낸 이사부 장군의 숭고한 정신이 깊은 울림을 전한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죽서루), 새천년도로 28(이사부독도기념관)



- 1 오십천의 굽이치는 물줄기가 깎아지른 절벽을 만나는 벼랑 끝에 죽서루가 아슬아슬 서 있다.
- 2 물에 떠 있는 섬처럼 연출한 이사부독도기념관 외부 전경.
- 3 이사부독도기념관 내부에는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체감하게 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이 상영된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삼척의 현장

삼척번개시장

오전 5시, 삼척역 앞 광장은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왁자한 분위기다. 이름하여 삼척번개시장. 플래시몹 이벤트처럼 상인과 손님이 순식간에 모였다 사라지는 이 시장은 오전 7시면 자취를 감춘다. 삼척번개시장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삼척항(옛 정라항) 주변에 수산물을 파는 노점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장이 형성됐다. 어부들이 동해에서 밤 새워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은 은빛 광채를 뽐으며 좌판을 가득 채웠고,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즉석에서 썰어 내는 막회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박한 성찬이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대게가 주연 자리를 꿰차고, 여름이면 동해의 오징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곰치도 빼놓을 수 없다. 예전엔 그물을 망가뜨리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바다로 던져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삼척번개시장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곰치가 됐다. 잘 익은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시원하게 끓여 낸 삼척식 곰치국은 밤새 차가운 바람을 견딘 여행자의 속을 뜨겁게 달래 주는 '해장국의 끝판왕'이다. 갓 구운 토스트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 대게로 육수를 낸 어묵 꼬치도 삼척번개시장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2



양혜민 ©



3

양혜민 ©



4

1,2 삼척의 아침을 깨우는 삼척번개시장에선 간밤에 동해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만난다.
3,4 참소라와 멍게, 가자미 등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5 밤새 배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싣고 돌아온 이른 새벽의 삼척항 풍경.

1



5



이재호 ©

2026 삼척 장미 축제

매년 5월 삼척을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삼척장미공원에서 장미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공원이 들어선 구역은 본래 시내를 가로지르는 오십천 하류 둔치에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된 공터였다. 그러다 2013년 삼척시가 시민과 여행자를 위한 공간을 고민한 끝에 도심 속 쉼터로 탈바꿈했다. 약 8만 4000제곱미터의 드넓은 대지에 아베마리아, 핑크 퍼퓸 등 222종 16만 그루의 장미를 심어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이 탄생했다. 탐스러운 장미가 가득한 장미 터널을 지나 싱그러운 잔디 광장과 시원한 바닥 분수로 이어지는 길은 봄의 절정을 만끽하는 삼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2016년에는 아름다운 장미정원에서 제1회 삼척 장미축제가 열렸다. 삼척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매김한 삼척 장미축제는 올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장미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알록달록한 꽃과 푸릇한 나무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초대 가수의 신나는 음악 공연, 장미꽃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삼척의 식자재와 주류를 감각적으로 페어링하는 먹거리 존과 삼척의 숨은 문화 콘텐츠를 굿즈로 만들어 파는 기념품 코너도 흥미롭다. 계절의 여왕 5월, 장미 향 가득한 삼척으로 떠나 보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232(삼척장미공원)



1

2



이규우 ©

3

1 부다페스트 코바스 트리오의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2025 삼척 장미축제.
2, 3 천만 송이 장미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삼척 장미축제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하는 퍼레이드가 흥을 돋운다.
4 2025 삼척 장미축제에 출연한 가수 로이킴.
5 2025년 축제의 주제는 '장미 요정과 비밀의 정원'이었다.

5



4



no.17

SAMCHEOK



이사부길 & 삼척해상스카이워크

삼척활기치유의숲 & 봉황산산림욕장

환선굴 & 대금굴

삼척해양레일바이크 & 삼척해상케이블카

죽서루 & 이사부독도기념관

삼척번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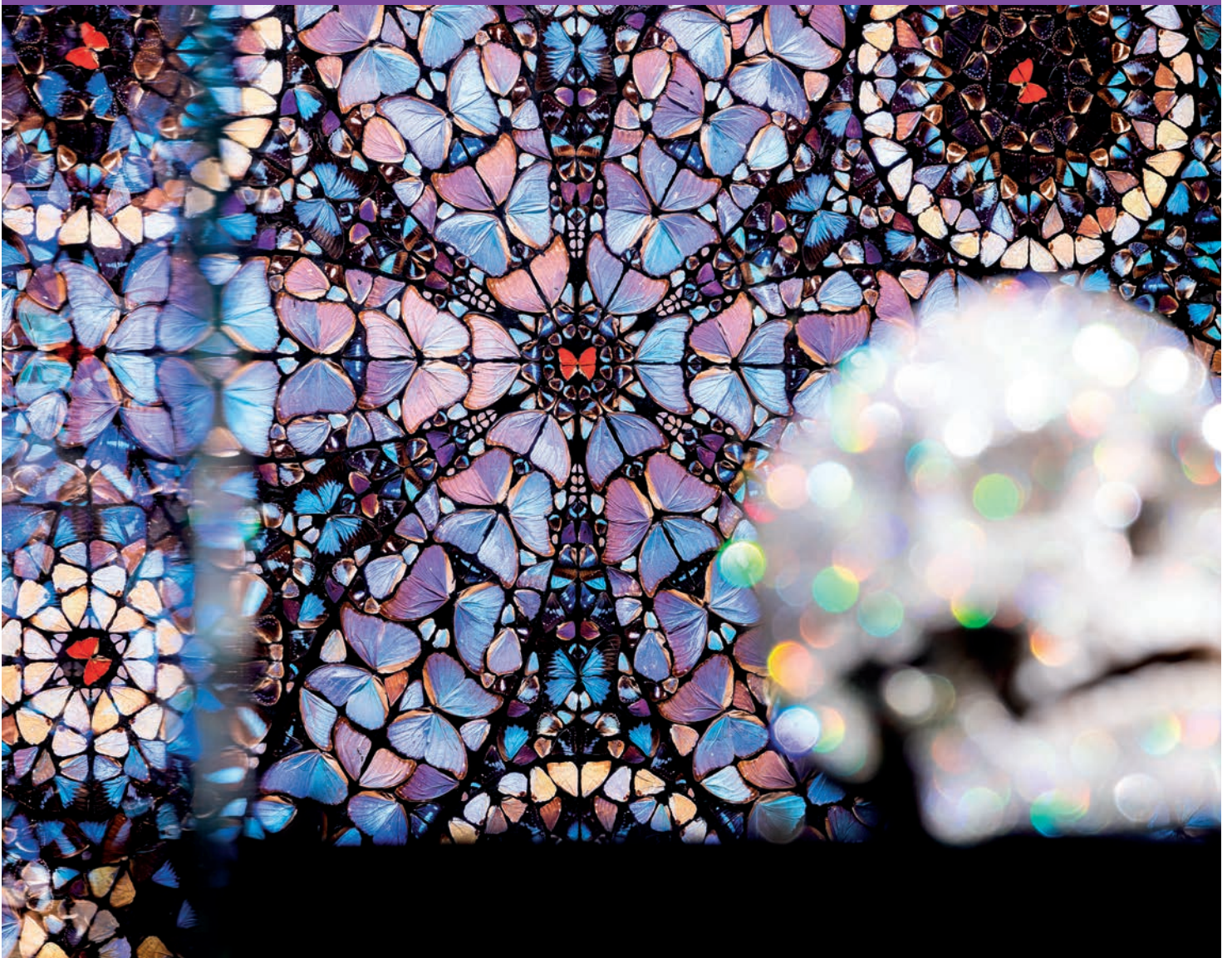
2026 삼척 장미축제

WRITER 박진명(<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안홍범, 전재호, 봉재석

제작 지원 삼척시청

지금 여기

음식수행자대안스님 |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지루할 틈 없는 충북 충주여행



음식 수행자와 우주의 밥상

먹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음식을 먹는 건 우주를 만나는 일이요, 그 자체가 수행이고 명상이라 말하는 음식수행자 대안스님께 물었다.



사찰 음식 명장 대안 스님은 밥과 나물로만 차린 심심한 채식 밥상이라는
편견을 깨고, 전통 사찰 음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한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셨어요.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죠. 우리의 몸과 정신도 그러해요.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오온(五蘊·불교에서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무더기로 분류한 개념)이에요. 오온은 현상적 존재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나로 불릴 수 없죠.”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 안긴 고요한 산사, 금수암에서 아침 공양을 마치고 대안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스님은 차 대신 커피를 내렸다. 사찰에 오래 머물렀던 바리스타에게 핸드 드립 기술을 전수받았단다. 지난 2월에 방영한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의 푸드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양간의 셰프들>에서는 고추장을 이용한 버섯 강정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안 스님은 밥과 나물로만 차린 심심한 채식 밥상이라는 사찰 음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전통 사찰 음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해 왔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양간을 벗어난 사찰 음식 레시피

그저 인연이었을 거다. 이승에서 어머니와의 연이 짧았던 것도, 세상 덧없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비구니가 된 것도. 대안 스님은 자신보다 먼저 출가한 언니 지은 스님을 따라 산문으로 들어섰다. 출가 후 해인사 국일암에서 수행하며 사찰의 기본 살림을 익혔고, 제철 식재료와 절제된 조리법을 배웠다. 고초도 겪었다. 꽤 오랫동안 암을 비롯한 갑상선 항진증, 디스크 등에 시달렸다. 하지만 인연을 원망하는 대신 섭생(攝生)을 공부했다. 그리고 사찰 음식을 제대로 하려면 음식과 조리에 관련된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 한·중·일 사찰 음식의 기본 원리를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한 연구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대안 스님은 금수암 주지이자 금당전통음식연구원 이사장이다. 1997년부터 요리 강좌와 저술 활동을 하며 사찰 음식을 소개했다. 2009년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해 설립한 '발우공양' 총책임자로 임명됐으며, 다양한 음식을 연구하고 메뉴를 개발해 채식의 이로움을 널리 알렸다. 2019년에는 사찰 음식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찰 음식 명장으로 지정됐다. 사찰 음식이 현대의 식생활과 연결되도록 다양한 채식 레시피를 개발해 온 대안 스님은 2023년 12월 금수암 도량 내에 '자연바루'를 열고, 사찰 음식에 지중해 레시피를 접목한 새로운 채식을 선보이고 있다.

뜰에서 주운 건강한 식재료

차담을 마치고 대안 스님을 따라 금수암 뒷산으로 향했다. 스님은 한 손에 소쿠리를, 다른 손에는 작은 칼을 들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일만 베어야 내년에도 이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밤사이 비가 내려 축축한 땅 위로 별이 드는 자리마다 여린 잎이 기지개를 켜다. 스님은 향이 가장 좋을 때라며 머위를 따다 나물을 만들고, 숨털 보송한 어린 쪽은 국을 끓여 주겠다고 했다. 땅에서 산야초를 캐던 스님이 두릅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더 자라길 기다릴 것인지, 보드라운 상태로 상에 올릴 것인지 고민하는 눈치다. 결국 딱 한 점서 채울 만큼만 따고 돌아섰다. 건강한 땅에서 맑은 물과 햇빛, 바람을 먹고 자란 재료가 스님의 소쿠리에 가득하다. 부지런히 몸을 챙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지리산 자락에 안긴 금수암은 주변이 곧 '마트'다. 소쿠리 하나 들고 뒷산에 가면 청정한 땅에서 맑은 물과 햇빛, 바람을 먹고 자란 채소를 얻을 수 있다.



1 자연바루 담장 아래에서 발견한 엉겅퀴. 가시가 많은 식물이지만 불빛을 머금은 어린잎은 생으로 먹기 좋다. 2 두릅을 따는 대안 스님. 3 건표고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 채수에 간장과 소금으로 간한 다음 썩을 넣고 끓인다 쌀가루와 들깨가루를 넣어 완성한 애숙국. 4 머위를 데쳐 물기를 짜고 된장, 고추장, 참기름, 참깨가루, 제피 가루를 섞은 양념으로 무쳐 낸 머위나물과 데친 두릅나물. 5 맛있어서 웃음이 나는 자연바루 웃음꽃피자. 토마토소스와 모차렐라 치즈를 넣고 바삭하게 구운 피자 위에 시금치 페스토가 올라간다. 6 굴취, 다래순, 오가피, 두릅, 엉개순, 산취를 재료로 한 오일 페스토로 만든 산야초 파스타. 7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은 금수암. 8 금가람 연일과 계절 채소를 이용한 자연바루 시그너처 연잎밥 정식. 전통 장과 효소가 들어간 천연 발효 음식이다.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과 함께한 <공양간의 셰프들> 촬영은 어땠나요? 내가 했던 첫마디가 “안 나오려고 했다”였을 거예요. 아주 독특해요. 스님이 사찰 음식으로 회자되고 방송에 출연하는 건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자꾸 매체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스님은 조용히 참선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한다는 시선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승병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라야 스님이 나서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사찰 음식을 알리기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찰 음식 대중화보다 이젠 불법을 잘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내 과제이기도 하고요.

스님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만들어 먹으려면 사찰 음식 관련 서적을 6권 냈으니 그걸 지침서로 삼으면 되고, 음식을 배우고 싶으면 이곳에 와서 요리 강좌를 들으면 돼요. 그런데도 내가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건 34년 동안 가꾼 이 도량이 적막강산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스님 밥이 먹고 싶어요”인데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으니, 대안으로 대중적인 채식 메뉴를 개발하고 체계를 갖춰 꾸린 곳이 자연바루예요.

자연바루 메뉴가 재밌어요. 사찰 음식 전문점에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게 될 줄 몰랐거든요. 사찰 음식의 변형이죠. 사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신채와 육류를 건어내고 전통 조리법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활용해요. 그리고 15년 숙성한 백초 효소를 첨가하니 자연 발효 음식이죠. 형태는 피자, 파스타, 샐러지만 재료가 달라요. 청년 셰프의 아이디어가 큰 몫을 했죠. “가족나물로 파스타를 해 볼까요?” “피자도 하면 안 될까요?” 새로운 메뉴를 제안했고, 함께 연구했어요. 전통 조리법을 지키면서 현대 식재료에 맞게 조리법을 변형하는 것은 중요해요. 먹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죽은 음식이니까요. 전통은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실생활에 쓰여야 오래 지속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지켜 나가는 전통은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 중에도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20~30년씩 연구하죠. 그것은 그분들의 소명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뿐이에요.

조금 전 뒷산에 갔을 때 잡초로 보이는 산야초의 이름과 성질을 다 꿰고 계신 것이 신기했어요. 공교롭게도 출가할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손에서 놓아 본 적이 없어요. 향력이 낮으니까 막내가 음식을 하는 거죠. 머리 깎고 행자가 되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출가 후 10년은 기본 교육 기간이에요. 4년 동안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선방에서 참선을 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섭생을 공부한 거죠. 절에서는 한정된, 제한된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어야 하니 끊임없이 푸성귀만 쫓아다녔어요. 농사에 관심을 갖고, 내가 먹고 싶은 채소 씨를 더 뿌리고, 오래 하니깐 알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익힌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이 고정관념으로 굳으면 고집불통이 돼요. ‘반드시 이래야 한다’거나 ‘절대 안 된다’는 태도는 위험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니 맞다고 생각하면 취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넘기면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힘들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굳어져서 그래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따르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자연바루를 향한 시선도 제각각이에요. 스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님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까.

만약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만약’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려서도 그랬고 출가 후에도 그렇고, 타고난 기질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했어요. 완벽주의 기질도 있어서 무언가 빠뜨려진 것이 있으면 그 꼴을 못 봤죠. 그런데 투병하고 성찰하면서 그런 기질을 다 버렸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되뇌며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같은 건 그때 다 없어졌어요. 오로지 현재에 집중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와 똑같아요. 순간이에요. 다만 점이 연결돼 선이 되듯 현재가 연결돼 선이 되는 과정이 삶인 거죠.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생명력을 밥상에 옮겨 놓는 것이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세상은 우주라 하고,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는 지수화풍(地水火風: 땅, 물, 불, 바람)으로 이뤄졌고, 밖에 있는 식물물을 내 몸에 들여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이 주식이니 우리는 광합성 작용을 한 식물물을 먹어야 밥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주는 전체를 말해요.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죠.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부처님은 “세계는 하나다. 나와 바깥 세계는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교에서 분별이란 ‘나와 타자’ ‘나와 세계’를 ‘나와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집착을 말해요. 분별이 강하면 너와 내가 분리된 존재라는 착각이 생겨 마음이 흔들리지만,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차담 때 말씀하신 연기법과 연결되는 말씀이네요. 음식 수행자라는 말의 의미도 늘 궁금했어요. 사찰 음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스님에겐 일상이 수행이에요. 농사지은 채소를 수확할 때도 자연을 관찰하고 성찰해요. 오이에는 수액을 먹으려는 개미가 있어요. 하지만 가시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해요. 자세히 보면 오이 가시는 딱 개미가 수액을 빨아먹지 못할 정도로만 자라요. 탱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곤줄박이는 탱자나무 과육을 좋아하는데, 탱자나무 가시는 딱 곤줄박이 부리만큼만 자라요. 가시가 짧으면 곤충에게 열매를 빼앗기고, 길면 가시에 영양분을 빼앗겨 열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며 진화한 거예요.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다 보면 깨치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요?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세포에 부딪혀 뇌하수체에 전달돼요. 어딘가 불편하고 불쾌해지죠.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감이 느껴져요. ‘좋다’ ‘맛있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죠. 모두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느낌이 극명하게 달라요.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바이오투드와 생활 습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고열량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죠. 스님들은 앉아서 참선할 때 저녁을 거의 안 먹어요. 속이 빈 게 편하니까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 남의 말을 따르기보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허스트 씨

명곡에 저마다의 사연이 입혀지듯 좋은 미술 작품에는 다양한 해석이 더해진다. 공포와 혐오, 충격과 황홀, 시각적 탐미와 잔혹한 역설이 뒤섞여 감성과 이성을 뒤흔드는 강렬한 세계, 데이미언 허스트의 멀티 유니버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 <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전이 열린다는 소식은 미술 애호가들을 달뜨게 만들었다. 허스트는 지난 수십 년간 현대미술계 한복판에서 작가이자 기획자, 비즈니스맨으로 종횡무진하며 미술사의 문제적 인간으로 자리매김한 슈퍼스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물간 작가의 뒤늦은 기착지'라거나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50만 관객을 동원한 론 뮤익 전시의 흥행 공식을 답습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기획'이라는 매운 비판도 따랐다. 무거운 이틀값을 증명하듯 여러 모로 뜨거웠던 반응 속에 드디어 전시가 시작됐다.

시대의 아이콘, 현대미술의 포식자

데이미언 허스트, 현대미술사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을까. 1988년 영국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직접 기획한 그룹전 <프리즈>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린 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비엔날레, 옥션을 넘나들며 현대미술계를 호령한 그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군단 'YBAs(Young British Artists)'의 핵심 인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미술 시장의 지배자, 막강한 자본에 과격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현대미술의 판도를 바꾼 혁명가이자 죽음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영민한 기획자. 허스트는 강력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시대의 강력한 아이콘이자 현상이 됐다.

기획부터 오픈까지 무려 4년이 걸린 이번 전시의 미덕은 명확하다. 허스트의 대표작 5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그간 사진과 기록으로만 접했던 주요 작품을 망라하며 35년 예술 여정을 폭넓게 펼쳐 보인다. 대학 시절부터 끝없이 변주해 온 '스팟 페인팅' 연작과 회전하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부어 회전속도와 물감의 유동성, 색상에 따라 우연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핀 페인팅' 연작 등 초기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을 지나면 그를 일찌감치 스타덤에 올려놓은 대표작들이 관람객



전시장 입구의 '서울 박스' 공간에 거대한 스케일로 설치된 '대형 스폿 벽'(2026). 대학 시절 시작한 이후, 시공간에 따라 변주되며 허스트의 시그니처가 된 '스팟 페인팅' 작업이다.

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일명 '상어'로 불리는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 놓여 있다. 20세기 미술의 대표 이미지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센세이션얼한 작품은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담긴 유리 수조 안에 거대한 상어를 가둔 설치미술 작품이다. 금방이라도 관람객의 머리를 집어삼킬 듯 입을 썩 벌린 채 생생하게 박제된 상어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포와 불멸을 향한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대면시킨다.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대표작 '천년'을 마주한다. 커다란 유리장 한쪽에 파리 유충이, 다른 한쪽에는 피가 흥건한 소머리가 놓인 풍경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이 촉발한 공감각적 환상일까. 부화한 파리들이 피 냄새를 좇아 이동하다 살충기에 부딪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충격적 설계 앞에서 관람객은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자리를 뜨지 못한다. 무작위적 죽음이 반복되는 광경을 생생히 지켜보면서도 진짜인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기이한 경험! 냉정하리만큼 잔혹한 생명의 순환을 미술관 한복판에 펼쳐 보이는 이 작품 역시 허스트의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를 향하고 있다.



'아름답게 폭발하는 머무가나내대출관과 광기 무지개의 소용돌이 그리고 죽음의 확산 페인팅'(1999).

허스트의 대표작이자 현대미술사의 가장 주요한 정면으로 기록될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



절린 소머리와 파리 유충, 살충기로 구성된 설치 작품 '천년'(1990). 커다란 유리장 한쪽에서 부화한 파리들이 소머리 쪽으로 날아가다가 살충기에 걸리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Installation view, Damien Hirst: Nothing is True But Everything is Possible (2026),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Photographed by Prudence Cuming Associates Ltd.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6.

수천 마리의 실제 나비 날개를 사용해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재현한 삼면화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목상하며'(2008). 가운데 놓인 작품은 인간의 두 개골을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두 작품 모두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삶의 무상함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예술가는 경계에 산다

세 번째 방,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는 그 유명한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형형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경매로 구입한 18세기 유럽인의 실제 유골을 백금으로 주조하고,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빈틈없이 장식한 이 작품은 제작비만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와 소멸을 뜻하는 해골의 이질적 결합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삶의 무상함을 은유한 작가의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시각적 경외감은 가히 압도적이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해골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노부부와 보안을 위해 배치한 시큐리티 요원, 쉴 새 없이 셀카를 찍어대는 젊은 관객들이 한데 뒤섞인 이 검은 방은 아름답고 기묘한 에너지 발산한다.

세속적 욕망과 종교적 숭고함의 동거랄까. 그 뒤편에는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재현한 삼면화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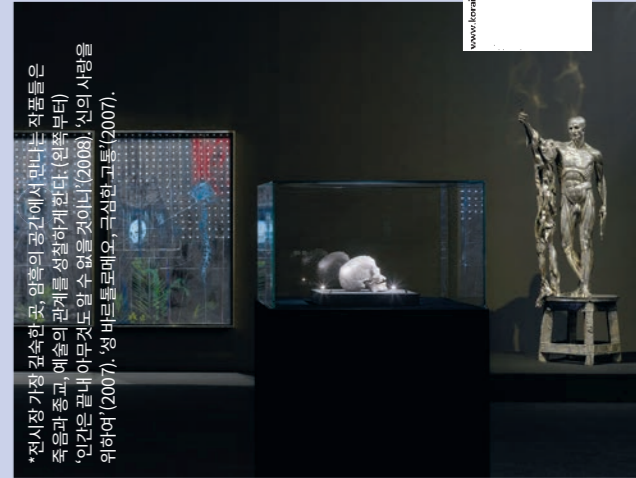
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목상하며'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해골과 어우러져 성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이 작품에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관객은 다시 한번 흠칫 놀란다. 화려한 기하학적 패턴의 실체가 수천 마리 나비의 날개를 하나하나 떼어 내 붙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수천 번의 죽음을 전제한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잔혹한 역설, 데이미언 허스트가 설계한 멀티유니버스의 진면목이다.

이쯤 되면 허스트에게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상업주의자'라는 오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기행이라고 불리도 좋을 일련의 작업이 단순히 명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에 그의 탐구는 길고도 진중했다. 허스트는 지난 30여년간 삶과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쫓아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집요한 변주를 이어왔다. 그가 탐구해 온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종교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불우했던 유년 시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허스트는 엄격한 어머니와 건강에 대한 강박이 심했던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절도죄로 두 차례나 체포될 만큼 반항적인 청년기를 보낸 그는 시체 안치소에서 시신을 다루고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의 이면을 목격했다. 죽은 육체를 마주하는 공포와 허무가 그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강력한 뿌리가 된 셈이다. 이후 허스트는 영생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과학과 자본의 관계, 종교와 예술의 역할을 치열하게 사유했다. 왜 그토록 극단까지 치달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때로는 선을 넘어 봐야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 답하며,

판타스틱 현대미술 가이드

예술은 엄숙해야 하는가?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할까? 예술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업은 현대미술이 지난 수십 년간 던진 질문을 미술관 안으로 자연스럽게 불러들인다. 그리고 관객에게서 불현듯 터져 나오는 생생한 감상 평만으로도 그 답은 충분히 보인다. "이거 진짜 소 머리 아니겠지? 설마!" "이거 작가가 한땀 한



*'진실장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공간에서 빛나는 작품들은 죽음과 종교, 예술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왼쪽부터) '인간은 끝까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2008),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성 바르톨로메오, 극심한 고통'(2007).

땀 붙인 건가?" "근데 미술관에 이런 게 있어도 되는 거야?" 불쾌함과 경외심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사유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허스트가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허스트의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술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조수 수십 명의 손을 빌리는 걸 자랑스레 밝혔던 그는 지금 '직접 그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런던의 작업실을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스튜디오'로 고스란히 옮겨와 현재 몰두하



*허스트는 일약과 의장, 의료 기구와 해골 등을 재료로 의식에 대한 맹신과 그에 따른 맹목적인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허스트는 지난 30여년간
'삶과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쫓아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집요한
변주를 이어 왔다.

고 있는 회화 연작을 최초로 공개했다.
60대가 된 허스트의 작업실은 캔버스와 물감으로 가득하다. '리버 페인팅'이라고 이름 붙인 그림 속에는 총천연색 도트와 박제된 동물, 꽃이 뒤엉켜 있고, 작가 노트에는 "사람은 강과 같고, 그 강은 모든 그림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관통해 흘러간다. 어쩌면 그 강이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죽음일지도"라고 적혀 있다. 개념의 설계자에서 붓을 든 수행자로 회귀했지만 그의 멀티 유니버스 속 화두는 여전히 삶이자 죽음 그 자체인 것이다!

더 많은 관람객, 더 넓은 세대에 '미술관 오는 즐거움'을 선사하려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의도는 이번에도 적중한 듯 보인다. 전시장은 남녀노소, 내외국인(장안의 외국인은 다 여기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많다!)이 뒤섞인 채 기분 좋게 출렁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차마 전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관람객들의 상기된 표정이다. 충격과 황홀을 두루 경험하며 전시를 만끽한 관람객들은 마지막 전시 공간에 놓인 긴 벤치에 앉아 말 그대로 '예술적 수다'에 몰두한다. 지금 여기서 예술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해프닝을 바라보는 시선, 마음 깊은 곳에 눌러뒀던 죽음에 대한 기억, 예술가의 생명 윤리에 대한 단상 등 주제는 수많은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 시시각각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채 침묵과 외면에 익숙해진 오늘, 죽음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허스트의 예술이 지닌 가장 놀라운 힘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전시 제목 그대로 진실은 없을지언정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허스트가 1998년 런던에 직접 열었던 '악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그대로 재현한 '악국 레스토랑의 미술관 디스플레이'(2026). 작품이 걸려야 할 전시 공간이 약으로 도배된 악국으로 전환되는 생경한 경험을 통해 당시했던 민음의 구조가 흔들리는 혼란을 경험케 한다.



언어가 예술을 완성한다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려고 일부터 작품명을 보지 않는 감상법에 있지만,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만큼은 예외다. 요즘말로 '작명 센스'를 타고난 그는 성경과 고전문학, 과학 용어 등을 차용해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거대담론으로 격상시킨다. 박제된 상어에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다이아몬드 해골에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이름 붙여 사유를 이끄는가 하면, 수십 개의 칼날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애드벌룬에는 '사랑의 취약성', 수천 마리의 실제 나비 날개로 스테인드글라스를 재현한 삼면화에는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라는 이름을 붙여 시각적 충격을 철학적 질문으로 치환한다. 작품을 충분히 보았다면 반드시 작품명을 소리 내어 읽어 보길 권한다.



Photographed by Prudence Cumming Associates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6.

온갖 의학품으로 가득 찬 약장 '더 백스 피스틀스'(1996). 의학을 맹신하던 할머니 밑에서 자란 허스트는 과거 종교가 누렸던 권위를 현대 의학의 자본이 대체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이면에 깔린 인간의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했다.



런던 템스강 밖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 온 공간. 소파와 작업대, 캔버스와 물감 등 스튜디오에 있는 물건은 물론, 전시 직전까지 작업하던 '리버 페인팅' 연작까지, 창작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Installation view, Damien Hirst Nothing is True But Everything is Possible (2026),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Photographed by Prudence Cumming Associates Ltd.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6.

오늘은 나도 꼬마 공예가

아이들은 사용법이 정해진 놀이가 아닌 스스로 상상하고 만드는 데 즐거움을 느낀다. 창작이 곧 놀이가 되는 곳,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된다.

오후 3시, 아이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놀이터가 한산하다. 시설이 낡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시소, 그네, 미끄럼틀 같은 단조로운 놀이기구에 흥미가 떨어진 탓이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놀거리를 갖춘 '서울형 키즈카페'로 몰려든다. 원어민 강사가 상주하는 영어 특화형 공간부터 모래 놀이터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체험형 공간, 그리고 집라인·클라이밍·트램펄린 등으로 이루어진 정글 놀이 공간까지, 진화한 서울형 키즈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도 '어린이 공예 놀이터'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로 재단장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푹푹푹. 어린이 박물관에서 들리는 경쾌한 망치 소리를 따라가 보면 아이들이 금속판에 메시지를 새긴 펜던트, 비즈 스티커로 꾸민 별 모양 점토 그릇 등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재료를 탐색하고 창작물을 완성하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놀이가 된다.



+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런 곳이에요

지난 2월, 공예를 주제로 한 서울형 키즈카페로 새 단장을 마쳤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8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캡슐 놀이, 자석 놀이판, 자율드로잉 등 놀이 요소를 대폭 늘린 것이다. 2층 '공예마을'에서는 금속·나무·그릇 공예, 3층 '아이들 스튜디오'에서는 직물 공예 중심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공예 작품을 가까이서 만나고, 연계된 체험을 놀이하듯 즐기며 공예와 친해진다. 9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으로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모든 체험은 무료이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나는
가구를 만드는
목수입니다
I'm a Carpenter
who makes furniture
100년 지만 참나무를 자르고
15년 동안 잘 말려서
나무 재료를 준비했어요.
모양을 만들고 길어내고 칠하고
다시 말리기를 수 없이 거듭해야
나무 책상이 만들어집니다.
나처럼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일 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불러요.



가마 안에서 그릇이 구워지고 있어요

The bowl is being fired
in the kiln.

흙으로 빚은 그릇을 높은 온도로 구워야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한발씩도록
가마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중요하지요.

나는 잠시 전 언덕에 가마를 짓고
만 무대기에는 공복을 만들어서
뜨거운 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퍼지게 했어요.

그릇공방의 미션은 '생일 파티상 차리기'. 음식모형더미에서 케이크와 마카롱, 도넛을 고르고, 해물라면의 면 역할을 할 실과 고명으로 올릴 게와 새우를 찾아낸다. 이제 그릇을 고를 차례. 소스용 종지부터 두툼한 스테인리스볼, 투명한 컵테일 잔까지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아이들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납작한 나무 접시에 디저트를 가지런히 올리고, 국물이 있는 해물라면은 깊은 도자기 그릇에 담는다. 플레이팅을 하며 그릇의 쓰임과 형태도 자연스럽게 익힌다.



가구공방에서 한 아이가 나무 조각을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빠르게 움직인다. 구멍이 뚫린 원형 조각 네 개에 긴 나무 막대를 하나씩 꽃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직사각형 조각을 목공풀로 붙여 형태를 만든다. 여기에 파란 펠트지와 눈알을 붙이자 귀여운 호랑이가 탄생했다. 같은 재료라도 창작물은 제각각이다. 다른 아이는 원형 조각을 바꿔 삼아 자동차를 완성했다. 서로의 작품을 높이 들어 보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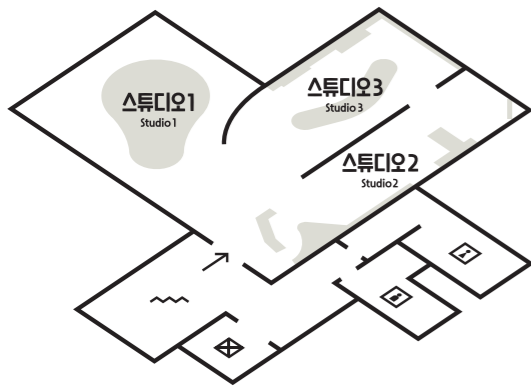
2층 | 공예마을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창작 공간으로, 철물공방·가구공방·그릇공방으로 나뉜다. 각 공방에서 아이들은 금속, 나무, 점토 등 다양한 재료와 망치, 목공풀, 조각칼 등의 도구를 다루며 스스로 작품을 완성한다. 정해진 방식은 없다. 마음 가는 대로, 손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만들면 된다. 그렇게 탄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예품은 집으로 가져간다.

망땅. 철물공방에서 경쾌한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원형의 알루미늄 금속판에 각인 막대를 세우고 망치로 힘있게 내리치자 이니셜과 하트, 별 모양이 또렷하게 찍힌다. 여기에 알록달록한 비즈 스티커를 붙이니 색감이 한층 화사해진다. 작업이 끝난 금속판에 가죽끈을 달면 나만의 멋진 목걸이가 완성된다.



가마 안에 그릇을 모두 넣은 후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구멍을 잘 막아야 해요.
불에 타지 않는 백돌로 입구를 막아주세요.



3층 | 아이들 스튜디오

직물 공예가의 작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연계된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 세 개의 스튜디오로 이루어졌다. 스튜디오1에는 섬유공예가 조소희의 그물 놀이터 '...where...'를 상설 전시하고, 기획전시실인 스튜디오2에서는 블랙 라이트 아래 형광색 실로 사람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이은숙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 '마음을 이어 주는 곰돌이'가 8월 말까지 방문객을 만난다. 스튜디오3에서는 다양한 옷감으로 옷차림을 완성하는 상시 워크숍 '디자이너 노트'를 비롯해 기획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에는 이은숙 작가와 함께 감정을 바람개비로 표현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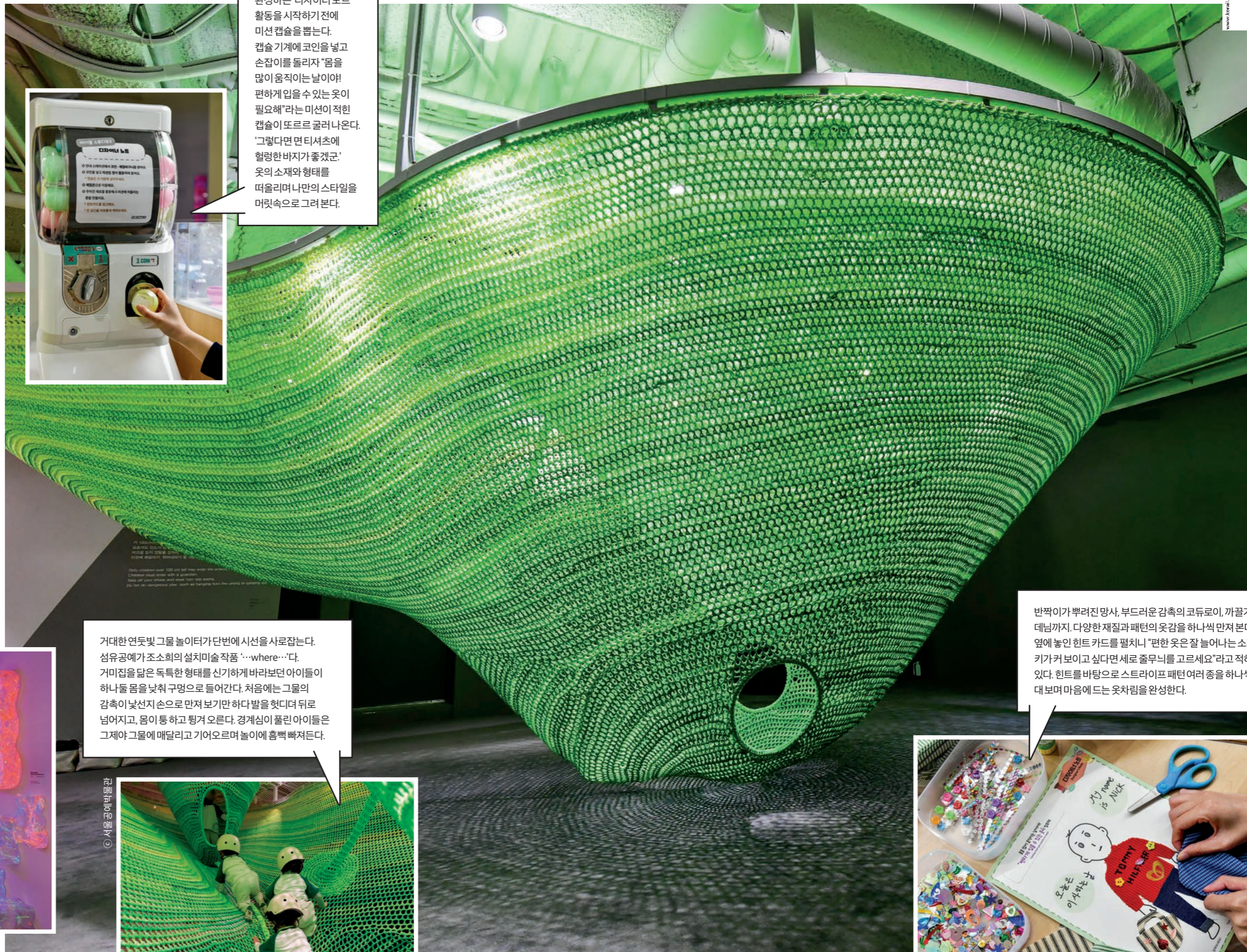
어둠속 색색의 빛을 뿜어내는 곰돌이 앞에서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이은숙 작가의 '마음을 이어 주는 곰돌이'다. 블랙라이트 아래 초록·주황·분홍·흰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형광 실이 서로 얽히며 내는 빛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이들은 작가가 사용하던 형광 실로 마그넷을 만들고, 형광펜으로 연서를 꾸미며 작품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거대한 연둣빛 그물 놀이터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섬유공예가 조소희의 설치 미술 작품 '...where...'다. 거미집을 닮은 독특한 형태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이들이 하나둘 몸을 낮춰 구멍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그물의 감촉이 낯선지 손으로 만져 보기만 하다 발을 헛디더 뒤로 넘어지고, 몸이 통하고 튕겨 오른다. 경계심이 풀린 아이들은 그제야 그물에 매달리고 기어오르며 놀이에 흠뻑 빠져든다.

© 서울공예박물관



다양한 옷감으로 옷차림을 완성하는 '디자이너 노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션 캡슐을 뽑는다. 캡슐 기계에 코인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자 "몸을 많이 움직이는 날이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해!"라는 미션이 적힌 캡슐이 또르르 굴러 나온다. '그렇다면 면 티셔츠에 할랑한 바지가 좋겠군.' 옷의 소재와 형태를 떠올리며 나만의 스타일을 머릿속으로 그려 본다.



반짝이가 뿌려진 망사, 부드러운 감촉의 코듀로이, 까끌거리는 데님까지. 다양한 재질과 패턴의 옷감을 하나씩 만져 본다. 옆에 놓인 힌트 카드를 펼치니 "편한 옷은 잘 늘어나는 소재로, 키가 커 보이고 싶다면 세로 줄무늬를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다. 힌트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프 패턴 여러 종을 하나씩 몸에 대보며 마음에 드는 옷차림을 완성한다.



지루할 틈 없는 충주

로컬 작가들의 플랫폼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숨어들고 싶은 선술집과 60여년 전 염소탕집을 개조한 라이프스타일 매장까지. 충북 충주에서 지루할 틈 없는 하루를 보냈다.



가는 방법 경기도 출발을 기준으로 판교역에서 KTX를 타고 충주역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린다. 충주역에서 122번 버스를 타고 국원고(건너편) 정류장에서 내려 충주 여행을 시작한다.



초록이와 순돌이가 사는 집

잔뜩

소도시 여행의 묘미는 형태가 제각각인 건물들이 만들어 낸 리듬감 있는 풍경을 보는 것이다. 충주천을 따라 골목을 거닐다 보면 따스한 질감의 붉은 벽돌과 우아한 곡선형 창문이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입구부터 싱그러움 식물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곳은 카페이자 플랜트 숍, 잔뜩이다. 박수빈 대표는 남편 근무지인 충주로 이주해 지난해 여름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 잔뜩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은 검은 시트지로 사방이 막힌 어둡고 답답한 PC방이었다. 박 대표는 가장 먼저 시트지를 걷어 내고 모든 창을 투명하게 개방했다. 본래 식물 가게로 기획했던 공간이 카페를 겸하게 된 이유는 사람 사이의 온기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입구 쪽에 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기 좋은 커다란 공용 테이블을 두고,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벽 쪽에도 테이블을 배치했다. “큰 테이블에 앉으면 모르는 이에게도 자리를 내 주잖아요. 그 모습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잔뜩의 대표 메뉴는 배롱나무 티 에이드와 훈연 유자 향 홍차 냉침 밀크티. 식물 가게답게 찾았을 이 용한 스페셜 음료를 낸다. 공간을 가득 메운 식물과 건강한 음료, 여기에 강아지 순돌이의 깜찍한 애교까지, 잔뜩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행을 추억하는 미식 탐험 꼬보

충주지방병원 충주지원 부근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선술집이 있다. 이탈리아어로 ‘동굴’을 뜻하는 꼬보(Covo)다.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아늑한 분위기에 취해 흥파티에 초대받은 기분이 든다. 손님을 황홀한 미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곳에선 밥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충주에 정착한 박영주 대표가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일본식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 ‘치킨 난반’은 일본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닭 요리를 재현했고, ‘철판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넷플릭스 드라마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원래는 고향인 과산군에서 반죽집을 하고 싶었어요. 사장이 되고 싶어 요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꼬보 단골들이 첫손에 꼽는 메뉴는 ‘라구 가지 덮밥’. 계절의 변화를 파스타 면 위에 오롯이 담아내는 제철 파스타도 인기다. 프랑스 해산물 스텐인 부아베스에서 착안한 ‘토마토 해산물 나베’는 얼큰한 맛으로 한식 애호가들의 입맛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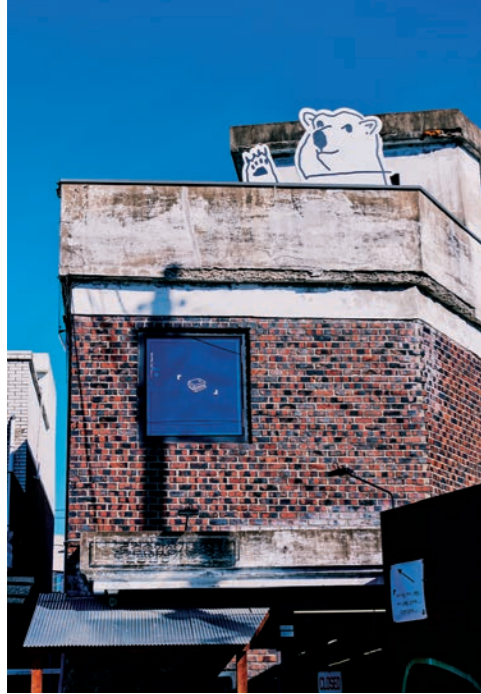
주소 충북 충주시 대가미13길 28 문의 0507-1426-7441

관아골의 정취를 담은 고티맨손

1969년부터 관아골을 지켜 온 염소탕집 자리에 6개의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들어섰다. 화덕 피자 전문점 ‘예반화덕’, 이탈리안 다이닝 레스토랑 ‘핀치 오살레’, 김치짜글이 전문점 ‘짜글옥’, 독립 서점 ‘책방, 궤’, 무인 문구점 ‘우드로그’, 향 브랜드 스튜디오 ‘쁘레땅’이다. 지역 관리 회사 보탬플러스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고티맨손은 이곳 운영자들의 새로운 터전이자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진영 보탬플러스 대표는 관아골에 더 많은 창업가와 창작자가 들어와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티맨손을 기획했다. 그는 인근 상가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입점 업체는 매달 열리는 담장마켓에 참여하고, 시민 대상으로 창업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생의 계약’은 마을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뜻을 함께한 이웃들이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관아골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음향부터 디자인, 건축, 영상까지 외부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모두 마을 안에서 해결한다. 고티맨손 한편에는 이곳의 전신인 염소탕집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관아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염소탕집 아들이 전해 준 자료가. 시간이 켜켜이 쌓인 기록물 앞에 서면 역사를 보존하며 오늘날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도시 재생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주소 충북 충주시 관아5길 2 문의 0507-1492-2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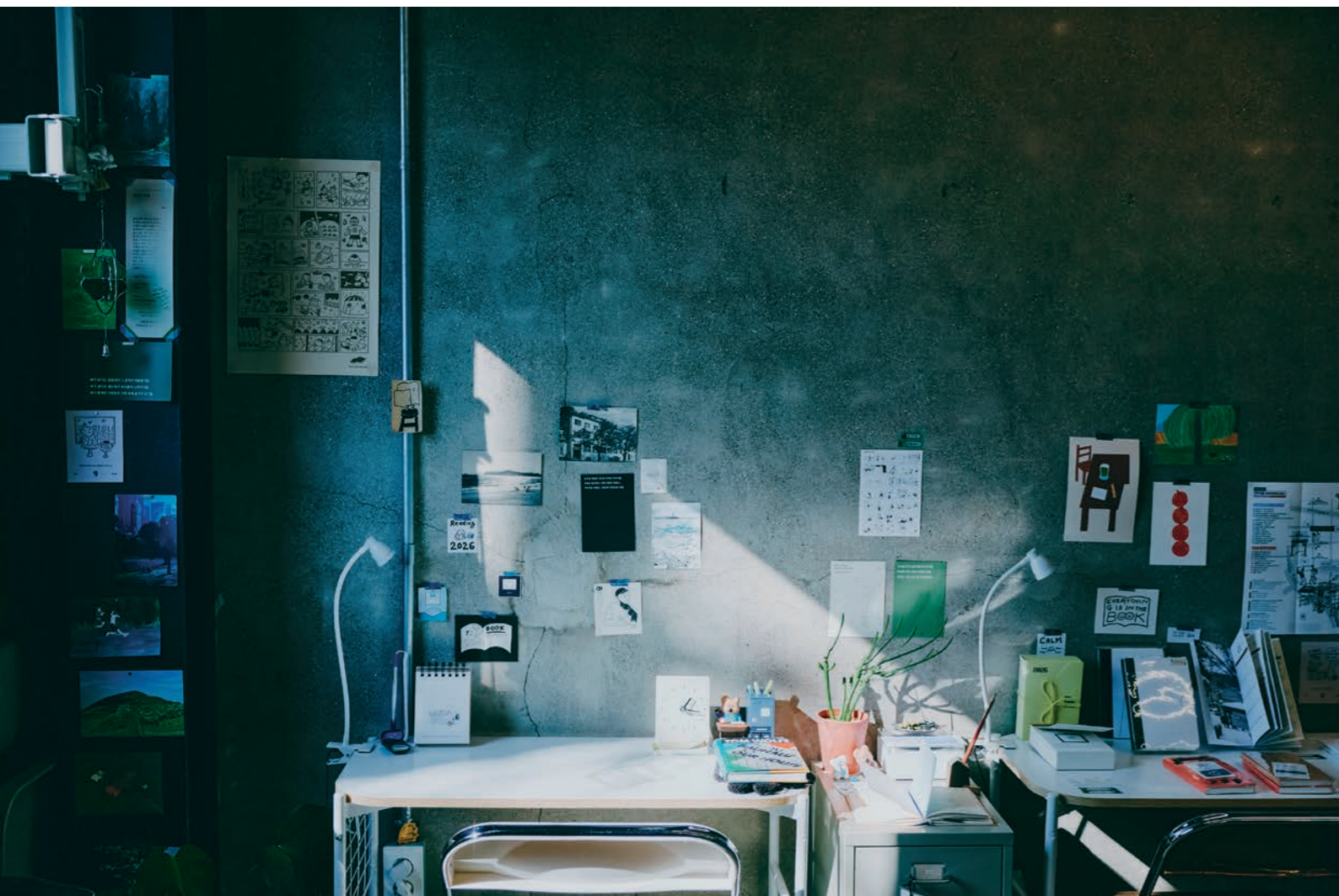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빈칸

충주에는 청년 창업가와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자리한다. 로컬 종합 상가 '복작'도 그중 하나. 여인숙을 개조한 건물에 공유 오피스, 사진 스튜디오, 책방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섰다.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곳은 독립 서점 빈칸이다. 우혜빈 대표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닌,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는 글책방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이 공간을 꾸렸다. '표지에 매료되어 산 책을 마음껏 자랑하는 모임'이나 '일상에서 길어 올린 좋아하는 문장을 나누는 모임'에 이러한 취지가 담겼다. 소설책과 시집으로 채운 서가에서는 우 대표의 취향이 드러난다. 특히 '사랑, 글, 말'이라는 키워드로 큐레이션한 섹션은 독자에게 예기치 못한 영감을 선사한다. 작가와의 북토크나 북페어를 열기도 하는데, 지난해에 개최한 북토크에는 옆 동네 괴산군 출신의 예소연 소설가를 초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 상반기에는 동네 매거진도 발행할 계획이다. 오랜 세월 관아골을 지켜 온 어르신부터 이제 막 마을에 등지를 튼 청년 창업가까지, 매거진에 실릴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빈칸을 방문해 보자.

주소 충북 충주시 성서1길 12-1 문의 0507-1380-7963



지역 상생을 위한 유쾌한 작당 모의 세상상회

8년 전의 관아골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풍경은 기적에 가깝다. 당시 이곳은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쇠락한 동네였다. 충청감영과 충주시문화회관, 충주예총회관 등이 자리해 한때는 충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였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활력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멈춰 버린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 건 2018년. 1945년에 지은 일본식 가옥과 1970년대 한옥을 고쳐 만든 세상상회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지역 활성화 컨설턴트이기도 한 이상창 대표가 충주에 내려와 동료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시골벽적인 작당 모의를 한 것이다. 고소한 스크와 구움 과자, 생과일 케이크는 물론 생강, 딸기 등 충주의 제철 식자재를 활용한 음료가 큰 인기를 얻는 디저트 카페지만, 세상상회의 정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로컬 작가들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자, 때로는 그들의 작업장 역할도 한다. 세상상회 앞 골목은 담장마켓, 충주북페어 같은 다채로운 로컬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무대이자 소통의 장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그저 카페 주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창 대표의 한마디가 세상상회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준다.

주소 충북 충주시 관아5길 4-1 문의 0507-1313-3458



서울시극단의 연극 <빅 마더>는 '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권력기관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진실에 무관심한 현대인의 미래



지난 3월 30일 서울시극단이 올해 첫 작품으로 <빅 마더>를 무대에 올렸다. 신임 단장 취임 후 첫 공연이자 극단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은 크게 주목받았다. 서울시극단 최연소 단장으로 임명된 이준우는 연극 <왕서개 이야기> <붉은 낙엽>, 뮤지컬 <홍련> 등을 연출하며 공연 예술계에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작품을 선호하며, 심도 깊은 작품 분석으로 입체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 내고 군더더기 없는 무대 연출을 선보이는 연출가로 호평받는다. 이번에도 시의적절한 작품을 통해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투명한 것이 곧 긍정적인 것이다?

연극 <빅 마더>의 배경은 미국이다.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퍼지고, 나라 전체가 발각 뒤집힌다. 언론사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뉴욕 탐사도 그중 하나다. 뉴욕 탐사는 문제의 영상이 딥페이크로 제작되었다는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범인 색출에 나선다. 동영상에 나온 이미지를 추적하고, 익명의 정치 커뮤니티를 검색한 뒤 IP 주소까지 확보해 공화당 당원 제니 켈러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제니 켈러의 딸 수지 켈러(투명사회연합 당원)가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더군다나 수지 켈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건 맞지만 영상 속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해 더욱 논란이 된다. 사건의 진범을 잘못 짚어 보도한 뉴욕 탐사에 온갖 악플이 쏟아지고, 기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생성된다.

악플과 가짜 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뉴욕 탐사 팀원들은 배후에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 '헌드레드 몽키'가 있음을 확인한다. 업체 대표는 새롭게 부상하는 정당, 투명사회연합의 대선 주자인 하워드 머서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던 팀원들은 '빅 마더'라는 이름의 국가 주도 정보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하워드 머서가 이를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낸다. 이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자 기자들은 홍콩으로 도피해 취재한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하워드 머서는 압도적인 득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곧이어 기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투명사회연합은 더 이상 권력자 한 명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정치인 없이 국민이 직접 모든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개개인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저장되는 빅데이터 활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가장 지독한 검열의 시작일 뿐이에요.”



용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하자고 말한다. 정치인에 질린 국민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보이기에 통제도 쉽다는 점이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쉽게 노출되고, 즉시 제거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된 사회에 살고 있다. 섬뜩할 만큼 빠르게 진화하는 AI는 치밀한 감시자가 되어 우리의 생활 습관과 소비 패턴, 욕망을 꿰뚫는다. 맞춤 정보를 찾아 주는 생성형 AI, 한 번 검색한 키워드로도 비슷한 카테고리의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 등이 그 예시다. 극 중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마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 브라더'에서 차용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며 통제하는 존재. 1949년에 1984년을 상상하며 창조한 '빅 브라더'가 2026년 '빅 마더'로 진화한 것이다.

연극과 영상의 조화로 만들어 낸 긴장감

<빅 마더>는 뉴욕 탐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기자의 개인 공간, 은밀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자들이 도피한 홍콩 호텔까지, 공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경우 대체로 빈 무대를 활용하지만 이준우 연출가는 객석 방향으로 열린 ㄷ자형 투명 무대를 설치했다. 얼핏 복도처럼 보이지만 작품 속 모든 공간을 다 표현하고, 무엇보다 이 연극에서 강조한 '투명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투명한 통로로 이동하는 배우를 관찰하면서, 투명해서 다 보이는 것을 좋다고 해야 할지 관객이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미디어 환경도 무대에 적극 반영한다. 무대에 설치한 영상 장치가 뉴스 속보부터 정규 뉴스 방송까지, 대통령 영상 스크린들로 촉발한 미국 대선의 지형 변화를 실시간 보도한다. 그간 이준우 연출가의 작품에서 잘 보이지 않던 영상을 이번에는 최대한 활용했다. 무대 중앙에 큰 화면을 달아 뉴스 속보와 정규 방송을 재생하고, 긴급 기자회견의 라이브 영상은 실시간 카메라를 사용해 생동감을 자아낸다. 배우들이 든 노트북 카메라로 인터뷰와 통화 장면을 영상화해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기도 한다.

뉴욕 탐사 기자들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다. 편집장 오웬 그린 역의 유성주·조한철 배우는 극의 중심을 잡고, 케이트 블랙웰 역의 최나라 배우는 분위기를 조절하는 노련한 기자를 연기한다. 줄리아 로빈슨 역의 신윤지 배우는 열혈 기자를, 알렉스 쿡 역의 이강욱·김세환 배우는 실력으로 자신을 검증하고 싶어 하는 인물을 표현한다. 이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언론인의 열정은 진실에 무관심한 우리를 반성하게 만든다.

<빅 마더>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도 그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인다. 빅마더 시스템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활용한, 명백한 범죄자 하워드 머서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은 정작 사건의 실상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자 그것을 덮으려는 가짜 뉴스에 더 관심을 보인다. 우리의 모습도 작품 속 인물들과 비슷하진 않을까. 공연을 보는 동안 뉴욕 탐사 기자들의 대사가 양심을 쿡쿡 찌른다.



<빅 마더>

프랑스 극작가 멜로디 무레의 희곡을 무대에 올린 <빅 마더>는 2023년 프랑스 연극계 최고 권위의 몰리에르상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극단 신임 단장이자 예술감독인 이준우가 올해 첫 작품으로 <빅 마더>를 선택했다. 정치, 미디어, 빅데이터가 결합한 현대사회의 구조를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내며 서울시극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연극이다. 국가의 거대한 관리 시스템을 파고드는 기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몰입감을 끌어올린다. 서울시극단 배우 김신기·최나라와 함께 유성주, 조한철, 김세환, 이강욱, 신윤지, 김은희, 최효영, 조수연이 열연을 펼친다.



내밀한 회복의 경험, 리커버리노믹스

침, 회복, 재충전이 소비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름하여 리커버리노믹스다.



리커버리노믹스(recoverynomics)란 회복(recovery)과 경제(economics)를 합친 신조어로,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이 휴식과 회복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방식 자체를 설계하고 큐레이션하며 소비한다. 상당한비용을 들여 침에 투자하는 것이다.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GWI)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 8000억 달러로 2013년

대비 두 배 성장했다. 2029년까지 10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때 웰니스는 요가매트와 유기농 식품, 명상 앱 정도로 대표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우나, 냉탕 침수, 수면 클리닉 등 회복을 위한 활동이 하나의 산업이 됐다. 리커버리노믹스는 웰니스 산업의 가장 뜨거운 진화방향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트렌드를 이끄는 주체가 2030세대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가 침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어느 세대

보다 빨리 번아웃을 겪는다. 무한 경쟁과 취업난에 SNS가 촉발하는 비교 피로감, 기후 불안까지 더해진 심리적 부담은 20대에 이미 정점을 찍는다. 이들은 '열심히 살기'와 '잘 쉬기'를 동시에 추구한다. 잘 쉬는 능력이 곧 자기 관리인 것이다. 회복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인 셈. 이를 실천하는 공간과 루틴을 소비함으로써 정체성을 표현한다. 여기에 경험 소비 흐름이 맞물린다. '무엇을 갖느냐'보다 '무엇을 경험하느냐'로 욕망의 축이 이동한 가운데 '리커버리'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경험으로 새로운 욕망의 언어가 됐다.

사우나슬랭의 탄생과 찜질방의 진화

일본에는 세 번의 사우나 붐이 있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핀란드 선수단이 사우나 문화를 선보이며 첫 번째 붐이 일었고, 1990년대 슈퍼 센토(대중탕과 찜질방의 중간 형태)가 확산하면서 사우나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세 번째 붐은 2019년 드라마 <사도>가 기록제가 됐다. 사우나 마니아 나카타가 전국의 유명 사우나를 순례하는 내용으로, 사우나 동료들과 함께 사우나 후 느끼는 '도토노우(정돈되다)'의 쾌감을 전한다. 만화 원작의 이 드라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우나를 경험해 본 적 없는 Z세대에게 가닿았고, 도토노우는 사우나 후 냉탕과 외기욕을 거쳐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로 정돈되는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비단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다. 소셜 사우나 플랫폼 '사우나이키타이'에는 자칭 사우나 마니아들이 모여 사우나 활동을 공유한다. 시설 리뷰, 도토노우 경험담, 추천 루틴까지 세세히 기록하며 사우나 문화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간다. 2018년에 시작된 '사우나슬랭'은 매년 11월 11일 도토노우의 날을 기점으로 지금 가야 할 사우나 시설을 <미슬랭 가이드>처럼 선정해 발표한다. 음식점을 큐레이션하듯 사우나를 큐레이션하는 것이다.

일본의 온천 문화가 사우나로 재편됐다면, 한국의 목욕 문화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진화 중이다. 먼저 전형적인 찜질방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1년 사이 '찜질방' 검색량이 두 배 이상 뛰었고, 어머니 세대의 전유물로 여기던 찜질방이 이제 2030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오래된 공간이 품은 리커버리의 본질을 젊은 세대가 다시 발견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우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우나와 커피챗이 결합하고, 음악 감상과 독서 모임이 이어지며, 러닝 클럽과 냉탕 침수가 한 공간에서 펼쳐진다. 라운지와 음료 서비스도 강화해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곳도 많아졌다.

몸의 감각이 주도하는 시간

아웃도어 편집숍 아웃오브올(Out of All)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우나리'를 진행했다. 함께 달린 뒤 텐트 사우나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40퍼센트 이상이 2030세대였다. 인스타그램에는 사우나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

했고, 맛집을 발굴하듯 사우나를 찾아다니는 소규모 모임도 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형 사우나와 함께 '혼자만의 회복'을 설계하는 프라이빗 사우나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커뮤니티형이 연결에 대한 갈망을 채워 준다면, 프라이빗 사우나는 단절을 통해 회복 에너지를 충전한다. 올해 초 서울 신사동에 문을 연 시수하우스가 프라이빗 사우나의 대표적 예다. 핀란드식 사우나를 표방하는 이곳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 개별 사우나실에서 뜨겁게 달궈진 돌 위에 물을 부어 발생하는 수증기, 즉 뢰윰(löyly)을 즐기는 방식이다. 단순히 몸을 쉬는 장소를 넘어 감각을 통해 신체와 정서를 차분히 정돈하는 환경을 지향한다.

2030세대가 사우나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디지털 디톡스다. 수많은 쇼츠와 알고리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는 시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온전히 감각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지금 2030세대가 가장 갈망하는 경험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사우나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커뮤니티형이든 프라이빗이든 욕망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 알고리즘이 아닌 내 몸의 감각이 주도하는 시간, 그것이 리커버리노믹스가 2030세대에게 건네는 가장 본질적인 제안이다.

회복을 소비하는 시대

리커버리노믹스는 한국과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다만 표현되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르다. 2022년 토론토에서 탄생해 2024년 뉴욕에 진출한 아더십(Othership)은 사우나와 냉탕 침수, 브레스워크, 명상 프로그램을 하나의 경험으로 엮는다. '도시의 소음에서 내면의 고요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단순한 웰니스 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임을 강조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그리핀타운의 리세스(Recess)는 사우나, 아이스 베스, 휴식 라운지, 차 서비스를 결합한 체류형 웰니스 시설이다. '수동적 휴식 공간'이 아니라, 몸을 자극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능동적 경험의 공간'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북유럽의 노르딕 베스 문화도, 미국 전역을 강타한 콜드 플런지 열풍도 같은 곳을 가리킨다.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회복은 이 시대가 함께 나누는 감각이 되고 있다.

리커버리노믹스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 잘 멈추는 것도 능력인 시대. 소유보다 경험이, 경험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회복의 경험이 새로운 욕망의 최상단으로 올라섰다. 어떤 브랜드를 걸치느냐보다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삶의 질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함께 땀을 빼고, 함께 냉탕에 뛰어들고, 함께 몸을 녹이는 것. 리커버리는 커뮤니티가 되고, 커뮤니티는 또 다른 리커버리가 된다. 우리는 지금 회복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NEWS



호주 퀸즐랜드 관광청 하나투어와 공동 프로모션 전개

호주 퀸즐랜드 관광청이 브리즈번 및 골드코스트 관광청, 하나투어와 손잡고 5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퀸즐랜드, 지금 떠나야 할 이유'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를 중심으로 퀸즐랜드의 매력을 집중 조명한다. 브리즈번의 스토리 브리지, 브리즈번강을 비롯해 골드코스트의 서퍼스 파라다이스, 호타유지엄 등 대표 명소를 소개한다.

홈페이지 queensland.com



오스트리아 <미술랭가이드 오스트리아 2026>에서 역대 최다 스타 획득

오스트리아 관광청이 전 세계 미식가들의 성서로 불리는 <미술랭가이드 오스트리아 2026>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오스트리아 전역 101개 레스토랑이 총 124개의 별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해 글로벌 미식 강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빈 소재 한식 레스토랑이 지난해 문을 연 이후 1년 만에 첫 미술랭 1스타를 받으며 오스트리아 미식 지형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이다.

홈페이지 austria.info/kr



래플스 호텔 싱가포르 앙드레 치앙 협업 레스토랑 '1887byAndre' 오픈

래플스 호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셰프 앙드레 치앙의 이름을 내건 다이닝 공간 '1887byAndre'를 공식 오픈했다. 호텔 개관 연도를 이름에 담은 이 레스토랑은 총 42석의 프라이빗 공간으로, 프랑스 정통 요리 기법과 137년의 유산을 결합한 미식을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일곱 가지 후추를 곁들인 소고기 요리'다.

홈페이지 rafflessingapore.com

<취사병 전설이 되다>

훈련병 생활을 마친 이등병 강성재. 선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뱉은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취사병이 된다. 걱정과 달리 그는 파인다이닝 셰프 못지않은 칼질과 거침없는 워질을 선보이며 '전설의 취사병'으로 거듭난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의 손맛에는 어떤 비기가 숨어 있을까. 5월 11일 공개.

출연 박지훈, 윤경호 감독 조남형 제공티브

<군체>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한층 진화한 호러 좀비 장르의 신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 고립된 생존자들은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맞서 싸운다. 서로 뒤엎기며 포효하거나 사지가 뒤틀린 채 질주하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종(種)이 관객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는다. 5월 21일 개봉.

출연 전지현, 구교환 감독 연상호

<피어스>

펜싱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됐던 형 조한이 돌아온다. 동생 쯔지에는 유일하게 형의 결백을 믿고 결을 지킨다. 그러나 전국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형의 서늘한 본성이 드러나며 굳게 믿어 온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날카롭게 충돌하는 두 형제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5월 13일 개봉.

출연 조유영, 류수보 감독 넬리시마 로우

<올 그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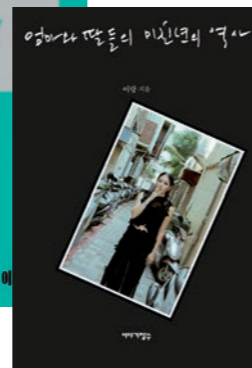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눈부신 미래를 쟁취하려는 세 여고생의 작당 모의를 그린 영화. '올 그린스'라는 비밀 클럽을 결성해 초록색 트레이닝복까지 맞춰 입은 보쿠 히데미, 미루쿠, 이와쿠마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다.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속 질주하는 청춘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5월 6일 개봉.

출연 미나미사라, 데구치 나쓰키 감독 코야마다 카시

<뒤바뀐 친구들의 신비한 모험>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을 연출한 네이슨 그레노 감독의 신작. 천적 관계인 포유류 울리와 새 아이비는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 신비한 열매에 부딪혀 서로의 몸이 뒤바뀐다. 둘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 열매를 찾아 나선다. 발랄한 유머와 따뜻한 감정을 균형 있게 엮은 연출이 돋보인다. 5월 1일 공개.

목소리 출연 마이클 B. 조던, 주노 템플 감독 네이슨 그레노 제공 넷플릭스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전작 <웃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로 패스트 패션의 폐해를 고발한 이소연 작가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며 마주한 K-웨딩의 이면을 파헤친다. 예비부부와 수십 명의 웨딩 관계자를 인터뷰한 그는 끝없이 붙는 추가비용의 향연 속에 사랑이 서비스로 치환되는 현실을 짚어낸다. 저자는 개인의 소중한 서사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파편화되고, 정형화된 정답을 강요받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이소연 지음 돌고래퍼냄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

아티스트 이랑이 가장 개인적이고도 아픈 고백을 들고 돌아왔다. 타인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라진 언니의 자리를 직시한 작가는 지독하리만큼 솔직한 자기 폭로의 글을 써 내려간다. 가난의 비루함과 가족 간의 애증,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까지 담아낸 날것의 문장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딸들의 보편적 감각을 건드린다.

이랑 지음 이야기장수퍼냄

BOOK

Information

152 코레일 소식 · 154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56 열차 이용 안내 · 158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6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이야기는 길' © 김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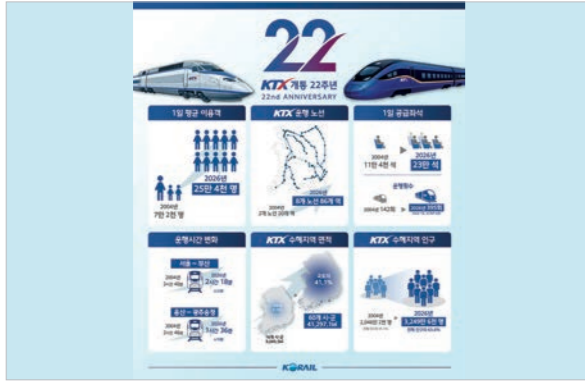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KTX 누적 이용객 12억 3000만 명 돌파



개통 22주년을 맞은 KTX의 누적 이용객이 12억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25만 4000명으로, 개통 당시보다 3.5배 증가했다. 지난해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 운행을 확대하는 등 수혜 지역을 늘려 전국 노선의 KTX 연간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5000명인 서울역이다.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설계 공모에 'T Museum' 선정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의 시설개선사업 설계 공모에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티 뮤지엄이 선정되었다. 티 뮤지엄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철도의 역사 공간, 과거의 철도 차량을 전시하는 공간,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구성했다. 부채꼴형 부지를 고려하고 왕송호수 앞을 달리는 열차가 보이도록 기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KTX-SRT 교차 운행 이용객 88.3퍼센트 만족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퍼센트가 KTX-SRT 교차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통합 운영 시 예약 앱 통합, 급급 좌석 확대 및 우회 통행 불편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9월 내에 통합 운영을 진행하고, 이 시기에 맞춰 통합 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재개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관광과 연계한 'DMZ 평화이음 열차'가 매달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후 6년 6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도라산역, 통일촌 등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연계해 운영하고, 사전 예약은 코레일 또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재치왕

윤정주님 04년생 라인업! 장원영, 설윤아 그리고 KTX 레쓰고~
고상은님 내 월급은 무궁화호인데, 카드값 나가는 속도는 KTX

문학왕

배재범님 빠르게 달려온 KTX 고마운 마음은 천천히 오래도록
이민성님 열차 안 추억은 짧아졌지만 여행지 추억은 더 깊어졌다

강동왕

홍은정님 타지생활 울엄마 보고플 때 동행해 준 KTX야 축하해
유성래님 KTX 네 덕분에 결혼했어 롱디를 지켜줘서 참 고마워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신문 Newspaper</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간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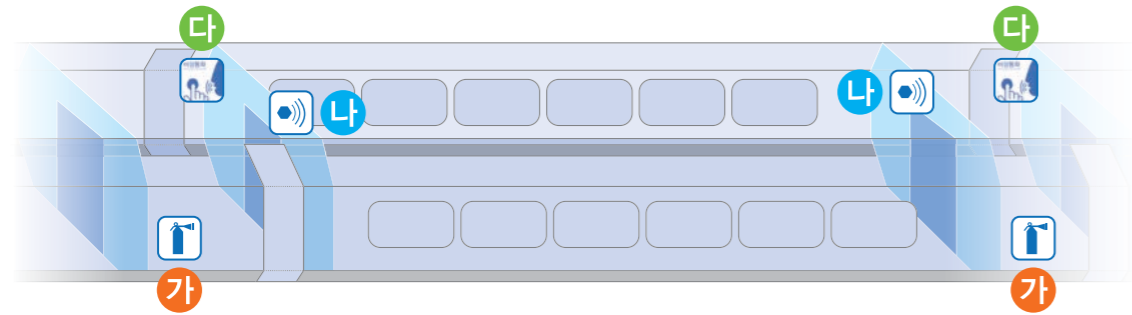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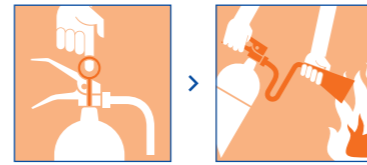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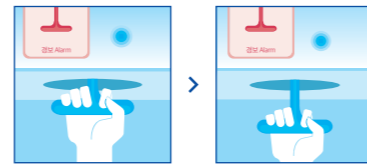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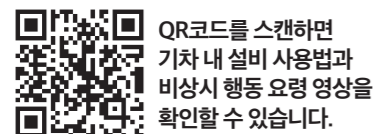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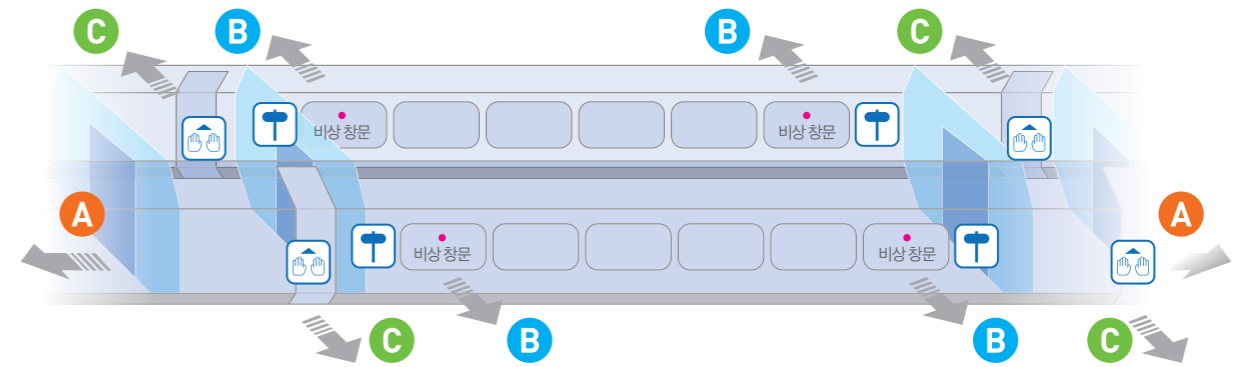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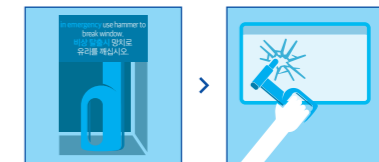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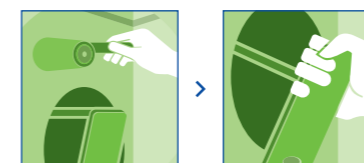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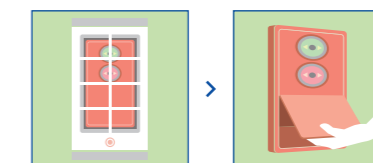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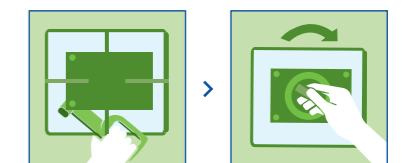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추다혜차지스와 떠나는 음악 여행



음악 듣기

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가 나타났다. 한 손엔 방울을,
다른 손엔 트로피를 쥔 추다혜차지스의 굿판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지친 영혼을 쓰다듬는 플레이리스트

▶ 추다혜 Track 3 이소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선율과 이소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잘 어울려요. 덕분에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여유가 생깁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듯,
이 노래와 함께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 시문 Tezeta 물라투 아스타케



'Tezeta'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에서 쓰는 용어로, 그리움이나 향수
같은 정서를 담고 있어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설레지만, 돌아올
때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친구를 두고 온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아요.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여행자들에게 이 곡이 심심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김재호 Astral Traveling 파로아 샌더스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목적지가
가물가물해집니다. 여러 가지 휘슬과 타악기를 사용한 인트로는 숲속으로
가는 길을 연상시켜요. 순식간에 시공간이 바뀌어 모험의 입구로
들어서게 하죠. 기묘하지만 친절한 여행을 만끽하기에 제격인 음악입니다.

▶ 김다빈 Textures 허비 행콕



반복적인 그루브와 부드러운 신스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특히 전자악기의 따뜻한 음색과 유려한 멜로디
라인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조금함을 없애줍니다.

▶ 추다혜차지스 리츨얼댄스 추다혜차지스



"맷힌 강장 다 풀러 놓서"라는 노랫말처럼 마음속에 쌓인 것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에너지가 강한 곡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루브가 매력적이예요. 이 음악과 함께
모든 시름 내려놓고 원하는 곳 어디로든 훌훌 떠나보세요.

▶ 추다혜차지스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은 남은 생애 많지 않을 것이다 단편선 순간들



이 노래가 시작되면 왠지 모르게 설렘니다. 멜로디가 밝기운과 담았어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절로 들뜨고,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여행지에서 듣는다면 설렘이 더욱 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은 남은 생애 많지 않을 테니까요.



추다혜차지스

추다혜(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으로 구성된 4인조 혼성 밴드.
평안도·제주도·황해도 곳곳에서 쓰는 무가에
재즈, 힙합, 펑크,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결합해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는 고유한
장르를 만들었다. 2020년 정규 앨범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로 데뷔했고, 이 앨범에 수록된
'리츨얼댄스'로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일앤비&소울 노래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 2집
앨범 <소수민족>과 수록곡 '허세'로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일앤비 &
소울 노래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대표곡으로
'작두' '좋다 잘한다 좋다' '비나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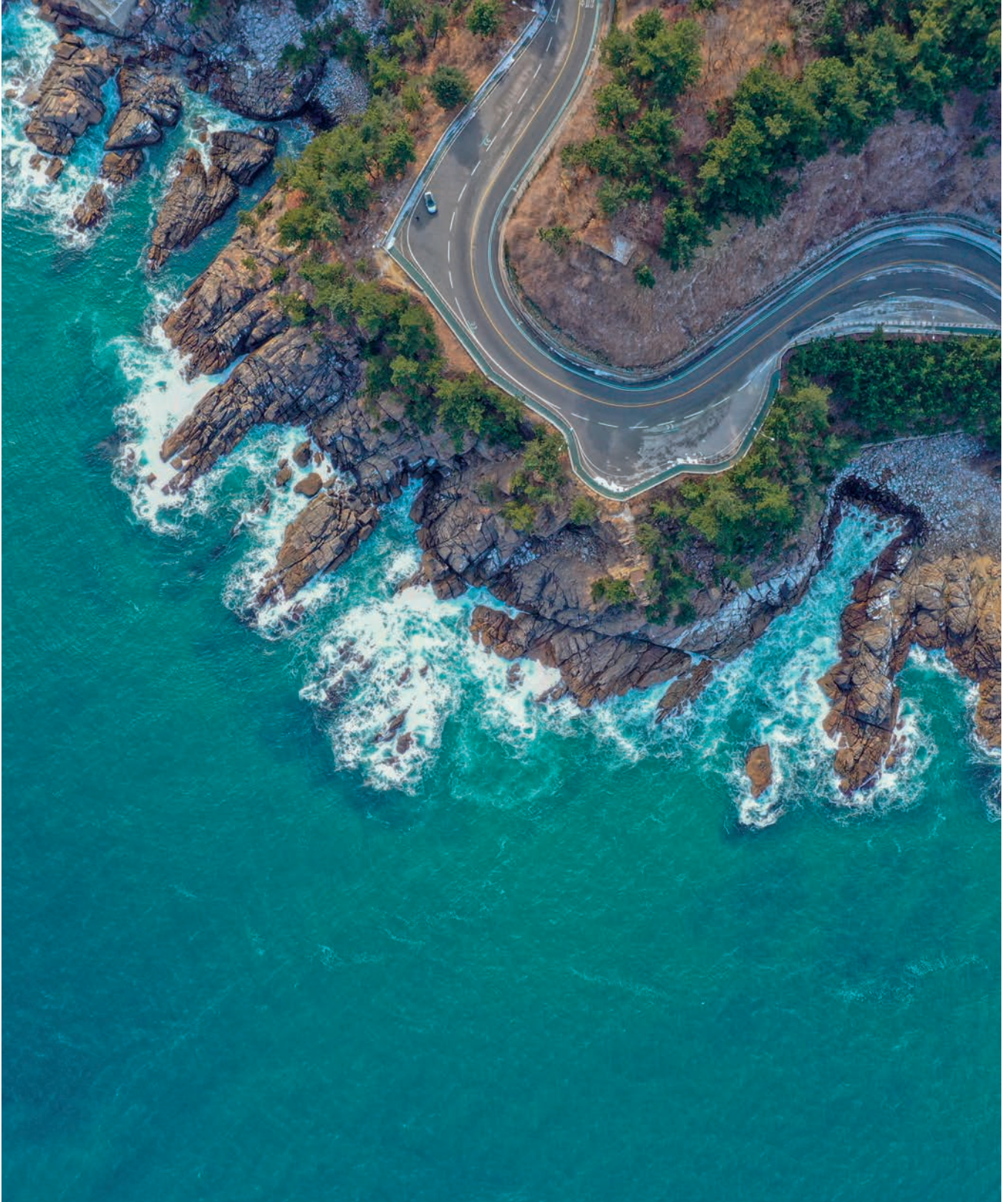
© 소수민족컴퍼니, 빅스



2026 삼척 장미축제 삼척 장미나라의 탄생

2026. 5.19.(화) - 5.25.(월)

삼척시 장미공원



해송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강원도 삼척의 새천년해안도로.